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안전도시 대덕구

우리가족 안전생활 길잡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Daejeon-Gu Daejeon Metropolitan City

우리가족 안전생활 길잡이



목 차

재난에 대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

자연 재난은 이렇게

1. 태 풍	7
2. 홍 수	9
3. 호 우	11
4. 강 풍	12
5. 해일(쓰나미)	13
6. 대 설	15
7. 한 파	17
8. 가 물	21
9. 폭 염	22
10. 지 진	25
11. 황 사	29
12. 산사태	32
13. 오 존	33
14. 낙뢰	34
15. 풍랑(너울성 파도)	36

인적 재난은 이렇게

16. 화 재	38
17. 산 불	42
18. 붕 괴	44
19. 폭 발	46
20. 화생방	47
21. 환경오염	49
22. 해빙기의 안전점검 요령	50

목 차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23. 교통사고	52
24. 전기사고	56
25. 감전사고	58
26. 가스사고	59
27. 승강기사고	62
28. 음식물사고	64
29. 해외여행	66
30. 성폭력	67
31. 어린이 생활 안전사고	69
32. 얼음판 안전사고 및 예방요령	72
33. 정 전	73
34. 테러 위협시(발생시)	75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35. 등 산	78
36. 수영, 물놀이	80
37. 자전거 안전수칙	84
38. 놀이기구	87
39. 유람선, 놀이배, 일반여객선 승선시 유의사항	88
40. 벌에 쏘였을 때 대처요령	89
41. 뱀에 물렸을 때 대처요령	90
42. 유행성출혈열 등 예방 안전수칙	90

기타 재난은 이렇게

43. 농기계 사고 예방	92
---------------------	----

목 차

44. 예초기, 낫 사용시 안전수칙	93
45. 테 러	94
46. 조류독감(AI)	95
47.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96
48. 신종인플루엔자 A(H1N1)	97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49. 운행중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경우	99
50.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101
51. 물에 가라앉고 있는 차에서 탈출하는 방법	102
52.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을 때 대처요령	103
53. 노상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요령	104
54. 야외에서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	105
55. 성냥 없이 불을 피우는 방법	106
56. 응급 출산시 대처요령	107
57. 얼음 구멍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	108
58.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을 때 대처요령	109
59. 이안류(바다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해류)에서 살아나려면	110
60. 벼락 맞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111
61. 절단된 수족을 치료하는 방법	112
62. 절단된 수족을 보관하는 방법	113
63. 호흡곤란의 경우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방법	114
64. 전화사기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 7가지	115
65. 벼락을 피하기 위한 방법	117
66. 사이버 테러/정보보호(개인 및 기업체)	118
67. 농약중독시 응급조치	120

목 차

부 록

○ 응급처치요령	124
① 화상이나 물에 덴 상처	124
② 열로 인한 질환 예방	124
③ 골절 처치법	125
④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때(심폐소생술)	126
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의식이 있을 때)	127
⑥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의식이 없을 때)	128
⑦ 유아가 숨을 쉬지 않거나 울지 못할 경우	129
⑧ 아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	130
⑨ 응급처치 교육	132
○ 태풍의 이름	133
○ 재미있고 과학적인 날씨 속담	134
○ 나의 재난예방 점수 알아보기	137
○ 나의 재난예방 점수	140
○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141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43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요령	144
○ 기상특보 종류와 발표기준	145
○ 알아두면 편리한 전화번호	146
○ 참고문헌 또는 자료출처	147

재난에 대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

1. 가족과 함께 재난대비를 위한 회의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재난발생시 당신과 가족들의 역할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 재난 종료 후 서로 다시 만날 장소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가족과 친척들의 연락처를 직장, 학교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중요한 물품은 누구든지 손쉽게 휴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2. 응급환자 대처법을 알아둡시다.

- 평상시에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 대한적십자사나 소방서에서 손쉽게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주위의 재난대비 계획을 파악해 둡시다.

- 학교, 직장, 가정의 재난대비 계획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가까운 대피장소와 안전한 대피경로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4.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합시다.



* 비상식량 및 식수(약 3일분량), 휴대용 조명 및 라디오(여분의 건전지), 양초 및 라이터, 약품함, 신발, 안경, 침낭, 위생물품(화장지, 세면도구, 생리용품) 신호용 거울, 호루라기, 아기용품, 취사도구 등

5. 부득이 하게 고립되었을 때 비상대처 방법을 알아둡시다.

- 홍수로 고립되거나 당신 혼자만 지붕위에 있다면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최대한 빨리 외부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대설로 자동차에 고립되었을 때에는 인근 대피소로 대피하거나 라디오 안테나 또는 창문에 천 조각을 매달아 멀리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차 내부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재해예방 내일의 행복약속

자연재난은 이렇게 ...

- 태 풍
- 홍 수
- 호 우
- 강 풍
- 해 일
- 대 설
- 한 파
- 가 물
- 폭 염
- 지 진
- 황 사
- 산사태
- 오 존
- 낙뢰
- 풍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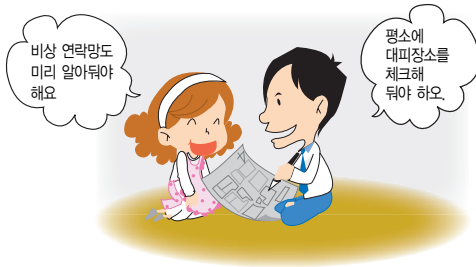


태 풍

01

▶ 태풍예보시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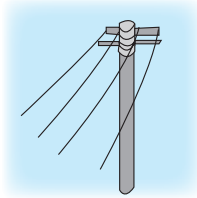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거주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하천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 합니다.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은 단단히 고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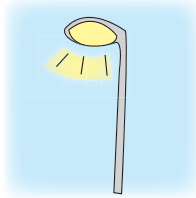
자연재난은 이렇게 ...

🔊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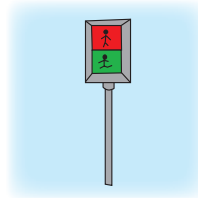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번개가 칠 때에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안으로 대피합니다.
- 천둥 · 번개가 치면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 놓읍시다.
- 창문이나 출입문은 잠그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 유리창에는 테이프를 붙입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전기의 위험이 있는 것은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시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마시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합니다.
-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근처에 가지 마시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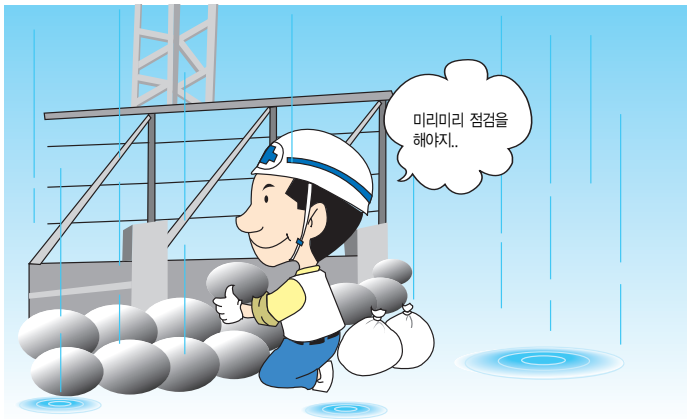


홍 수

02

홍수에 대비하여

- 피해예상지역 주민은 대피준비를 하고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둡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 운행을 하지 맙시다.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경우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시다.
- 우물은 오염될 수 있으니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해 둡시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

물이 밀려드나요?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하천의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만일 독의 물이 넘치고 하수도로 물이 나온다면 다음의 사항을 준비합니다.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필요한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주변을 정비합니다.
 -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 둡시다.
- 밀려온 물은 오염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화되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읍시다.



호 우

03

🔊 비가 많이 오나요?

- 집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와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 저지대,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사는 주민은 대피준비를 합니다.
- 침수지역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니다.
-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 저단기어로 운행합니다.
-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번개가 칠 때에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안으로 대피합니다.
- 천둥·번개가 치면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 놓읍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이나 농기계,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수산물시설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 해안가에서는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하천변이나 지하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지대로 이동 주차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시다.

🔊 호우가 지나갔나요?

- 파손된 시설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관 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의뢰합니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

강 풍

04

강풍에 대비합니다.

- 문 · 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머무릅니다.
- 유리 창문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 비닐 또는 테이프를 창문에 붙입니다.
-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로 가지 않습니다.
- 라디오나 TV의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 날아 갈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강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 지붕 위나 바깥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나무 밑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 바닷가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속도를 줄입니다.





해 일(쓰나미)

05

해일 이렇게 대비하세요.

- 안전한 대피장소와 대피경로를 미리 알아둡시다.
- 현관 문턱, 개구멍 등 물이 들어 올 수 있는 곳을 막아둡시다.
- 집 주변 하수구가 흙이나 쓰레기로 막혀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합시다.
- 방이나 거실의 침수에 대비하여 중요한 물건은 높은 곳으로 옮깁시다.

해일이 발생했나요?

- 태풍 시 행동요령에 맞춰 행동합시다.
- 지진해일(쓰나미)의 경우에는 사전예고가 어렵고 피해 정도가 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매우 심한 지면진동을 느끼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난 것이므로 해안지역의 주민은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 지진해일(쓰나미)은 약 10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약 30분에서 파도의 높이가 가장 높고 이러한 상태가 약 3~4시간 반복된 후 점차 약화되면서 하루정도 지속된다는 점에 유의합시다.
- 지진해일(쓰나미) 정보 시 수영, 보트놀이, 낚시, 야영 등을 즉시 멈추고 해변가나 주택 및 지하실에서 대피합시다.
-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와 이웃 간의 연락 방법을 알아둡시다.
-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 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시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

이럴 땐 대피합시다.

-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군·구청, 소방서 등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합시다.
- 지반의 진동이 있을 때 대피합시다.
- 해일이 밀려들 때 대피합시다.



미처 대피를 못 했나요?

-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 목조주택은 떠내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합시다.
-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미처 대피를 못 했나요?

-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 목조주택은 떠내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합시다.
-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대 설

06

❶ 눈이 많이 내리나요?

-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합니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30cm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웁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웁시다.
-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❷ 대설주의보 또는 경보라는 기상정보를 들었나요?

- 자가용차량을 이용할 때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장구와 고립에 대비하여 담요와 양초를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 고속도로 운행 중 직설로 통행이 어려울 때에는 도로공사의 지시(방송, 전광판 표시)에 따라 중앙분리대 개구부로 우회하여 가까운 IC로 회차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장시간 지체되어 불가피하게 차를 두고 대피하여야 할 경우에는 귀중품은 챙겨 가지고 자동차 키는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자동차를 세우지 맙시다.
-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에 대해 알아둡시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를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어 재배 시설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합시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의 비닐은 걷어냅니다.
-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합시다.
- 외딴 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비상연락을 합시다.
- 양식시설의 물고기에게 줄 사료를 준비합시다.





한 파

07

▶ 한파에 대비 합시다.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심한 한기 · 피로,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 급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 노인 ·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려야 합니다.

▶ 겨울 운동에 주의합시다.

-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관절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준비운동은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합니다.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오후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利尿) · 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 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수도 계량기, 보일러 배관 보온

-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서 보호함 내부는 현옷으로 채우고 외부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배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따뜻한 물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여야 합니다.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현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기능으로 두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 가족·친지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 둡시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합니다.
- 만약 자동차에 고립될 경우에는
 - 휴대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합니다.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차로로 수면을 취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차량 내 온도와 체온을 유지하고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색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체인 등을 준비합니다.
-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예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야를 넓혀서 빙판길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합니다.
-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으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 앞바퀴를 직진상태로 하고 출발해야 헛도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커브 길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빙판길에서 멈출 때에는 엔진브레이크(저속엔진 + 저속기어)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 후 서서히 풋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야 합니다.
- 저속 운행,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수칙을 준수합니다.

🔊 농림 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보온해야 합니다.
- 온실의 작물이 동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온실 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에는 보온벽(방풍벽)을 설치합니다.
- 온실의 둘레는 단열재를 두르고 위쪽은 보온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 정전으로 난방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태우거나 난로를 피워서 난방해야 합니다.
- 기온이 급강하할 것에 대비하여 난방·보온재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정비합니다.
- 축사 등은 바람구멍을 막고 보온재와 난방기를 준비합니다.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온으로 동파를 방지합니다.
-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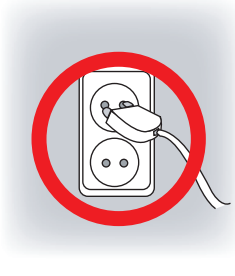
자연재난은 이렇게...

수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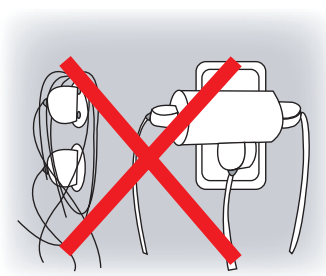
- 한파가 닥치기 전에 어장 면적의 1%이상 월동장을 설치합니다.
- 육상양식장은 방풍망 설치 등 보온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한파가 지속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한파가 예보되면 수위를 높게 하고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 어류가 동사하면 신속하게 냉동·저장한 후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전기 분야

- 전열기나 난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 하나의 콘센트를 여러 개의 콘센트로 분리시켜, 많은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지 말아야 합니다.
- 전기 고장시 즉시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개인이 임의로 조작하지 맙시다.
- 전기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퓨즈로 사용하지 맙시다.



〈콘센트는 하나에 하나씩〉



〈문어발식 콘센트는 NO!〉



가 물

08

가물에 대비 합시다.

- 가정에서는 물 절약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 식당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합시다.
- 개인 소유의 우물은 공동으로 이용합시다.
- 논·밭 토양의 수분정도와 농작물의 상태를 잘 살펴봅시다.
- 물이 쉽게 고갈되는 곳이나 물이 부족한 지역을 잘 알아둡시다.
- 가물이 오기 전에 우물과 같은 용수원을 미리 개발합시다.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양수기를 잘 점검합시다.
- 논물가두기, 사용한 물 재사용 등으로 용수를 확보합시다.



가물 확산단계 대처요령

- 비상급수용 관정, 우물 등을 개발합시다.
-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장비를 총동원하여 다단급수, 양수저류 합시다.
- 물막이, 하상굴착 등 간이 용수원을 개발합시다.
- 수산생물 등은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줄입니다.
- 물을 많이 이용하는 업소나 산업체에서는 자율 휴무를 실시합시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폭염

09

▶ 폭염에 대비 합시다.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시다.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시다.
- 외출 시에는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립니다.
-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시다.

▶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 육류,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야채·과일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합시다.
단,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합시다.
- 탄산·알코올·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십니다.

▶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 물은 끓여 먹고, 날 음식은 삼갑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립니다.
- 조리 기구는 청결히 사용합시다.

▶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시다.
(건강 실내 냉방 온도는 26~28℃)
- 한 시간에 한번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시다.



-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합니다.
- 에어컨 가동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료,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집니다.

-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보살피도록 합니다.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합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등을 준비합니다.
- 정전 시 뉴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합니다.
-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하고 집안의 전기차단기를 내리거나 모든 전기기구를 꺼두도록 합니다.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축사주변과 운동장에 차양을 설치합니다.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며, 사육 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 사육장 천장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식혀주도록 합니다.
- 축사와 운동장의 분뇨를 제거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 비닐하우스의 고온피해 방지를 위해 차광·수막시설을 설치합니다.
-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에 힘씁니다.
- 노지재배 채소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살수작업을 합니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 산업 ·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근무 방안 등을 마련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 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 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검토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쓰세요.

🔊 양식 어장에서는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환수량은 최대한 늘리고, 먹이 공급량과 사육밀도는 하향 조절합니다.
- 액화산소를 공급하거나 공기를 불어 넣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읍니다.
- 물고기의 생리적 약화에 의한 어병 확산을 방지합니다.

🔊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합니다.

-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오래 자지 않습니다.
- 잠들기 전의 심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합니다.
- 커피,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술·담배는 삼갑시다.





지 진

10

지진 이렇게 대비합니다.

- 천장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맙시다.
- 가스·전기·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둡시다.
- 비상시 서로 헤어질 것을 대비하여 다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정하고 모일 장소를 익혀둡시다.
-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도 미리 알아둡시다.
-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고 비상시 가족들이 취해야 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둡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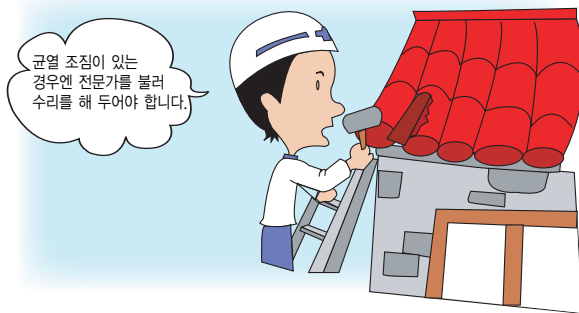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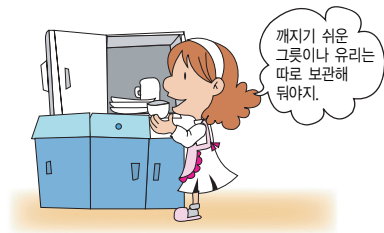
지진 발생 전인가요?

- 지진발생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합시다.
-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고 불안전한 부분을 수리합시다.
-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시다.
- 크고 무거운 물건을 선반에 올려두지 않도록 합시다.
-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등은 잠글 수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합시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 균열음, 진동 등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거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 둡니다.



🔊 지진 발생 중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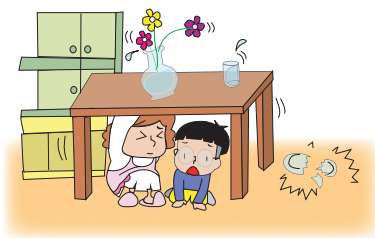
- 지진 중 발생한 대부분의 부상은 이동할 때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것이므로,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욕실)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에는 유리파편 등을 조심합니다.
-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힌 사례가 있으므로 빨리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 거리에서 심한 진동이 오면 자세를 낮추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건물 · 가로등 · 전선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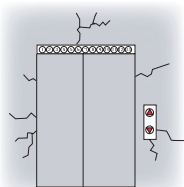
-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합니다.
- 번화가(빌딩가)에서는 떨어지는 물체(유리 파편, 간판 등)가 가장 위험하므로 우선 갖고 있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장소로 대피하거나 대형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출입구로 몰려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헬멧, 책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멀리하면서 진동이 멈출 때를 기다려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이동 중인 차량은 가능한 빨리 건물, 나무, 고가도로 전선아래, 주변의 정지된 차 등을 피해 멈추고 도로나 교량의 피해정도를 살펴며 침착하게 차량 밖으로 탈출합니다.
-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
- 만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후 신속히 대피합니다.



밖인 경우 떨어지는 파편들을 대비해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 합니다.



계단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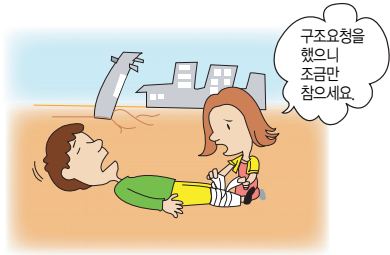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자연재난은 이렇게...

🔊 지진이 멈추었나요?

- 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의해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여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위치한 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부상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고, 만약 부상자를 옮겨야만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부위를 고정시킨 후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부상자의 호흡과 심장이 모두 또는 호흡이나 심장이 멈춘 경우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 담요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키되, 환자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불(양초, 성냥, 라이터)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 가스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소리가 나면 창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되, 가능하면 메인밸브를 잠근 후 도시가스회사,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전문가의 조치를 받은 다음 재사용합니다.
- 전기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차단기를 내립니다.
- 수도관에 피해를 입었다면 집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잠급시다.
- 하수관로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맙시다.
- 인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사용을 자제합니다.
- 긴급사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 거리로 가급적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면, 지진에 의한 피해(떨어진 전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축대·교량·도로 등)에 주의합니다.
- 소방관, 경찰관, 구조요원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지역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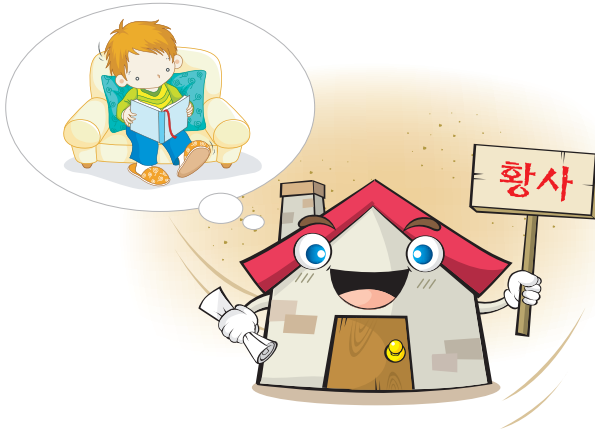


황 사

11

🔊 황사 이렇게 대비합니다.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읍시다.
-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갑시다.
- 만약 외출할 때에는 긴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 보호용 안경 등을 착용합니다.
-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읍시다.
-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읍시다.
- 가습기 등으로 집안의 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합니다.



황사가 심할때는 외출을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 황사가 발생하려고 하나요?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니다.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합니다.
 - 외출 시에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니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읍시다.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합니다.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합니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황사가 발생하였나요?

- 가능한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합니다.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가공·조리시 손을 철저히 씻읍시다.





-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업하여야 합니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시거나 연기합니다.
-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야 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읍시다.
- 제조업체 등에서는 야적된 자재 및 생산제품에 포장을 덮읍시다.

🔊 황사가 지나갔나요?

-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주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합니다.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니다.
-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하거나 소독을 실시합니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가축의 질병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산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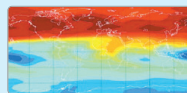
12

산사태 발생 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전에는 물이 없던 지역에서 물이 솟아 나오거나 물이 샌다.
- 땅, 포장도로, 인도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다.
- 계단이나 테라스 등과 같은 부속구조물이 주요구조물과 떨어지거나 기운다.
- 수도관이나 지중에 매설된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된다.
- 전신주, 나무, 벽, 울타리 등이 기울어진다.
- 계곡수의 수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탁해진다.
- 문이나 창문이 뾰뾰하거나 문설주나 틀이 눈에 띄이게 비틀어진다.
- 위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고합니다.

산사태 대처요령

- 건물 안에 있을 때에는 책상, 테이블 밑으로 피신하고 밖으로 나오지 맙시다.
-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쪽의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뛰어 대피합니다.
- 바위나 다른 잔해물이 접근해 오면 가까운 나무나 건물이 밀집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탈출이 불가능하면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산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부상자나 갇힌 사람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건물의 기초, 굴뚝,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점검한 후 들어가야 합니다.



오 존

13

오존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 대기중의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 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사용자제와 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해야 하며,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통행금지과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구 분	시 민	차량운전자(소유자)	관계기관	사업장
주의보 (0.12ppm이상)	· 노천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경보지역내 차량운행 자제 권고(Carpool제 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	· 주의보 상황 통보 ·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자료 검토 요청	
경 보 (0.3ppm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제한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강화 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강화 요청	· 연 료 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pm이상)	· 소각시설 사용금지 요청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등 실외 학습금지 및 휴교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 질환자 실외 활동금지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 관측활동강화 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 홍보강화 요청 ·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 요청	· 조업 단축 명령

자연재난은 이렇게...

낙 회

14

낙뢰가 예상되나요?

- 건물 안, 자동차 안, 혹은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낚시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를 잘 알아 둡시다.

낙뢰가 치나요?

- 평지나 산 위에서 낙뢰가 치고 있을 때는 몸을 가능한 낮게 하고 우묵한 곳이나 동굴속으로 피합니다.
- 벌판에 있는 나무나 키가 큰 나무에는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 낚시대나 골프채 같은 키가 큰 물건은 땅에 내려놓고 자세를 낮춥니다.
-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에 낙뢰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접지됩니다.
- 집에 낙뢰가 치면 TV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낙뢰사고시 응급처치법

-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구조해 내면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의 유무를 살핍니다.
-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는 인공 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병행해서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의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떨고있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합니다.
- 사고가 등산 중이거나 해서 의사의 치료를 받을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더라도 결코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 주십시오.
- 또 설사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전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응급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낙뢰란?

번개의 종류 가운데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말한다.
흔히 벼락 혹은 대지 방전이라고 불린다.

자연재난은 이렇게...

풍랑 (너울성 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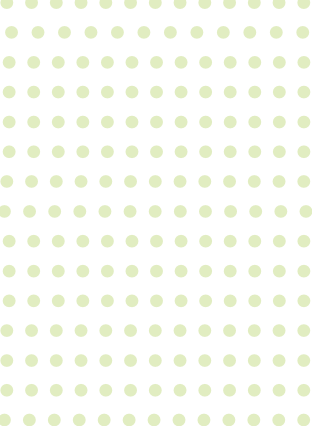
15

풍랑 이렇게 대비합니다.

- 너울은 발생에 대한 관측이 어렵고 피해를 유발할 정도로 발전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너울은 먼 바다에서 전파되므로 맑은 날 바람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여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의 해안가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키므로 라디오, TV 등 기상상황을 청취해야 합니다.

풍랑 기상정보를 들었나요?

- 바닷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바닷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는다.
- 바닷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경,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 항해 중 또는 조선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소형 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발(고정)한다.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인적재난은 이렇게 ...

- 화 재
- 산 불
- 붕 괴
- 폭 발
- 화생방
- 환경오염
- 해빙기의 안전점검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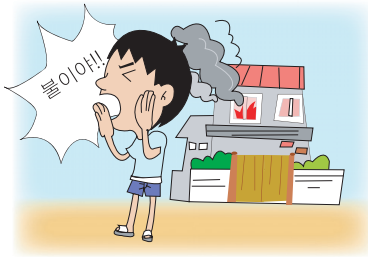
인적재난은 이렇게...

화재

16

!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니다.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정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 방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모든 인원이 대피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 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줍니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
- 연기가 많을 때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불을 끕니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가스중독과 산소 부족을 예방합니다.

❗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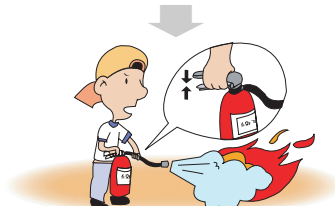
1.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2.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한다.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손잡이를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인적재난은 이렇게 ...

❗ 화재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간단 ·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
(○○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신고순서

1. 신고자 이름: 000입니다.
2. 화재가 난 곳의 주소: 모르는 경우 주변의 큰 건물을 말한다.
3. 신고자 전화번호: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4. 화재원인: 전기, 기름, 가스 등





❗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 노약자 ·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습니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니다.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럭을 따라 나갑니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불조심 10대 안전수칙

- 전열기구는 사용한 후 반드시 플러그를 뽑습니다.
- 어린이에게 불을 맡기거나 불장난을 못하도록 합니다.
- 취침 전, 외출시에는 화기 및 전기 ·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 합니다.
- 매일 퇴근시간 전 · 후 불조심 방송을 실시합니다.
- 흡연구역을 준수하여 담뱃불이나 궤초를 아무 곳이나 버리지 않습니다.
- 난로 주위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화기, 모래 등을 준비합니다.
- 자체 방화 순찰을 철저히 합니다.
- 유류 등 위험물은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취급합니다.
- 전기시설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휴무 기간 중에는 완전 차단합니다.
- 가연성 가스는 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취급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방시설 사용법을 익혀둡니다.

인적재난은 이렇게...

산 불

17

! 산불이 발생했나요?

- 산불 발견 시 119, 112,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풍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니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이미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합니다.
- 산불이 난 곳보다 낮은 곳으로 대피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탈것이 적은 곳을 골라 낙엽과 마른풀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주세요.

!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물을 뿌려주며 가스·기름통, 장작 등을 제거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합니다.
-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 가족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합니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때 이렇게 하세요.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삽, 톱, 갈고리 등)와 안전장구(긴 팔 면직옷, 안전모, 안전화)를 준비합니다.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활동에 참여합니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안내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활동에 참여합니다.

인적재난은 이렇게...

붕괴

18

❗ 붕괴 사고가 발생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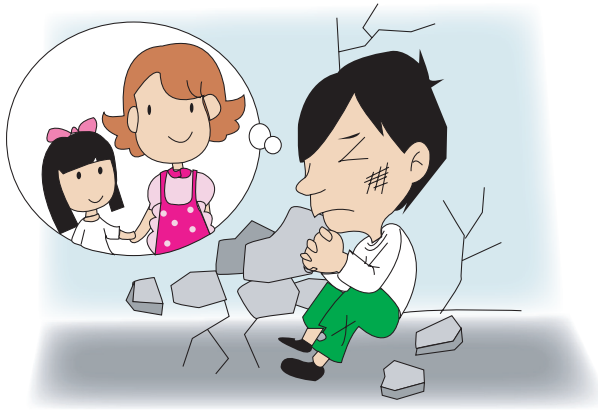
- 건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합니다.
- 부상자는 가능한 응급처치를 한 후 함께 탈출합니다.
-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 대피는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하여 이동해야 하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
-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 및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잔해에 깔린 경우에 이렇게 하세요.

-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 구조요청방법은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합니다.(휴대전화는 불통구역이라도 전원을 일정주기로 켜줘야 합니다.)



-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박스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합니다.
-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합니다.
- 잔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경우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야 합니다.
-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생존을 위한 탐색을 계속하면 기운을 차리게 되고 사기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인할 경우에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인적재난은 이렇게...

폭 발

19

❗ 폭발위험이 있나요?

- 폭발이 일어나면 화재도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라이터, 버너 등 점화원을 제거합니다.
-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합니다.
- 가스에 의해 눈이 따가울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대피장소는 사고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공터가 좋습니다).
- 대피 시에는 연기·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호흡기관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부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하고 물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 가스가 누출되었나요?

- 가스누출이 발견되면 즉시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가야 하며 용기의 밸브도 차단합니다.
-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시고 후 바닥에 남아있는 가스(LPG)를 비나 방식으로 방 쓸 듯이 쓸어내야 합니다.
- 라이터를 켜거나 쇠붙이를 부딪치지 말아야 합니다.
- 환풍기, 선풍기 등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거나 켜지 말고 즉시 가스판매소나 도시가스 지역 관리소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화생방

20

!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나요?

- 화학물질의 누출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이웃에 알리도록 합니다.
- 사고지점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에는 가능한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건물 내로 대피했을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문틈을 꼭 막아서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아무거나 만지지 맙시다.

!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나요?

-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지하실이나 건물의 중앙으로 대피합니다.
- 오염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꼭 닫읍시다.
- 가옥 내에 대피한 주민은 노란색 천을 걸어 건물 내에 대피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 사무실이나 집에서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잠그고 흰 수건이나 의류를 눈에 띄는 곳에 걸어 두어 대피 완료했음을 표시합니다.
- 대피할 때에는 전기와 가스를 끄고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 있을 경우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므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 옥내 대피시의 최대 2~3일을 초과하지 맙시다.
-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관계기관 및 방재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인적재난은 이렇게...

❗ 낙진이 떨어질 때 이렇게 하세요.

- 가급적 건물 내에서 생활합니다.
- 외출 시는 우산이나 비옷을 휴대하여 눈·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야 합니다.
- 옥외에 있던 물이나 식품은 폐기 또는 오염 검사 후 사용합니다.
-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 가축은 축사로 이동시키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합니다.
- 대형 건물에서는 공조설비가 흡입하는 외부공기를 정화할 방법을 마련하거나 공조설비를 꺼야 합니다.





환경오염

21

!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나요?

- 환경오염 정보를 들은 경우, 라디오나 TV를 청취하며 대피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 사고발생시 외부에 있다면 하천의 상류부, 언덕 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 유독성물질은 물이나 공기를 통하여 빠르게 이동되므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한 2.5km 이상은 떨어져야 합니다.
- 차내에 있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외부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조작합니다.
-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문틈은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밀봉합니다.
- 에어컨, 목욕탕, 부엌 환기구 등의 틈도 테이프나 파라핀종이로 막아야 합니다.
- 아궁이나 벽난로의 굴뚝은 폐쇄하고, 환기장치를 꺼야 합니다.
- 건물의 관리인은 모든 환기장치를 내부순환으로 바꾸어야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장치를 꺼야 합니다.
- 건물 내로 유독성 오염물질이 유입되었다고 의심되면 옷이나 수건을 입과 코에 대고 호흡량을 줄여 호흡하면서 건물 내에서 오염 영향이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 유출된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과도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장갑, 양말, 신발을 반드시 착용하고 우의나 비닐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절대 먹지 말고, 오염물에 접촉된 경우 비누로 깨끗이 씻읍시다.

인적재난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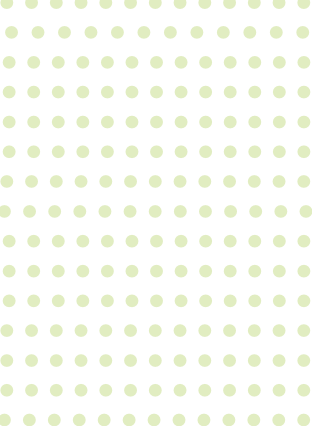
해빙기의 안전점검 요령

22

❗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위험요인이 많아집니다.

- 공사장 부근 통행시
 - 지반 침하로 인한 굴곡 등 이상 징후 있는지 주의
 - 지하굴착 주변에 추락 · 접근금지 표지판, 안전웬스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 확인
- 절개지 · 낙석위험지역 점검
 -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 낙석(들뜬 암석)의 우려가 없는지?
 - 절개지에 접한 건물 내 · 외벽에 균열은 없는지?
 - 낙석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 노후 건축물 · 축대옹벽 주변점검
 - 주변 건축물이 균열이나 지반침하가 기울어져 있는지?
 - 집 주위의 배수로나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지?
 - 지반 침하나 배수불량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 교통사고
- 전기사고
- 감전사고
- 가스사고
- 승강기사고
- 음식물사고
- 해외여행
- 성폭력
- 어린이 생활 안전사고
- 얼음판 안전사고 및 예방요령
- 정 전
- 테러 위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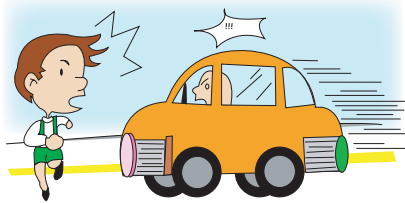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교통사고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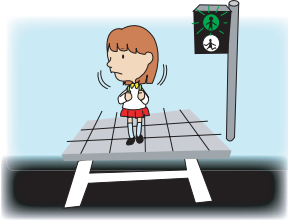
? 자동차 사고에 대비합니다.

-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서는
 -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니다.
 - 사람이 내리고 있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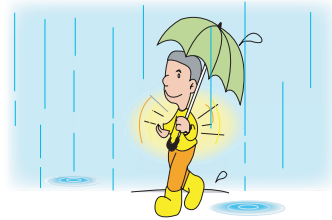


무단 횡단은 위험합니다.

- 안전한 도로보행을 위해서는
 -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니다.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건도록 합니다.
 -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완전히 멈춰있는지 좌우를 확인 하세요.



비오는 날은 밝은 옷을 입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합시다.

? 철도 사고에 대비하세요.

- 자동차 운전자가 건널목을 통과 할 때
 -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방향의 열차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보종이 울리거나 차단기가 하강 중일 때는 건널목으로 진입하지 맙시다.
 - 앞차가 건널목을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 건널목으로 진입합니다.
 - 건널목에서 차가 멈추면, 자동변속기 차량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를 밀고 수동 변속기 차량은 기어를 1단에 놓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키로 시동모터를 돌리면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밀어야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도와주도록 합니다.
-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 철길이 파손되었거나 선로에 큰 돌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080-850-4982, 1544-7788, 119, 112)합니다.
 - 철길(교량, 터널 등)로 다니지 맙시다.
 -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일시정지 후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합니다.
 - 철길 가까이에서 어린이들이 놀거나 가축을 풀어 놓지 맙시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항공기 사고 발생에 대비합시다.

■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 비행 전 승무원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상황발생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만일 비행 중 비상용 산소마스크가 내려올 경우에는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이용 시, 굽이 높은 구두나 모서리가 날카로운 장신구와 소지품은 기내에 남겨두고 탈출합니다.
- 충돌 전 좌석등받이를 앞으로 세우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 항공기 여행 시 주의사항

- 기내 수화물은 유사시 신속한 탈출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된 부피와 무게를 준수합니다.
- 복장은 유사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합성 소재가 아닌 면과 같은 천연소재 의류를 이용합니다.
- 난기류 등에 의한 기체 요동에 대비하여 비행 중 좌석에서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 만일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비행 중 발생 가능한 신체·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항공사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탑승 전에 반드시 주지시킵시다.
- 출발 전 배정된 좌석에 착석합니다. 배정된 좌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항공기의 비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선박 사고 발생에 대비합시다.

- 소화기와 유리창을 깨는 망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시다.
-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 유사시 탈출로가 어디인지 확인합시다.
- 화재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경보기를 눌러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유리창을 깨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 화재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 의자 밑 또는 선실 내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행동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신발을 벗으십시오.
 - 선장 등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탈출합니다.
 - 출입문 쪽에 화염이 있거나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선내에 비치된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합니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신속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거적, 낙엽 등으로 덮거나 서로 몸을 맞대거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은
 -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타야 합니다.
 - 선내에서 장난을 치거나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 음주자는 소형선박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전기사고

24

? 단락(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나요?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의 것을 사용합시다.
-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 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은 새 전선으로 교체합시다.
- 스위치, 배전반 등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 등을 제거합시다.
- 천정 등 보이지 않는 장소에 시설된 전선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시다.
- 배선은 가능한 보호관을 사용하고 열이나 외부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 못이나 스테이플러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합시다.
-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등으로 보호합시다.

? 누전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나요?

-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배선을 분류하여 배선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합시다.
- 배선의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시다.
-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해야 합니다.

?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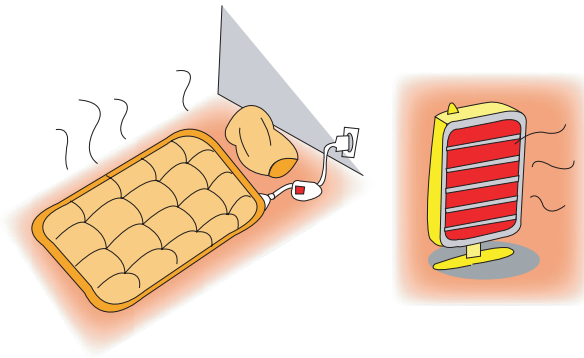
-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둡시다.
-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둡시다.



- 배전반 내의 먼지, 금속가루 등 분진을 제거합니다.
- 밀가루, 톱밥, 섬유 먼지 등 가연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 위험물, 기타 가연물은 두지 않습니다.

❓ 과열에 의한 전기화재 위험이 있나요?

-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합니다.
- 전기장판 등 발열체를 장시간 전원을 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고열이 발생하는 백열전구는 열이 잘 발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합니다.
- 전선과 전선, 단자와 전선 등 접속부위는 단단히 조여서 느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전기장판 등 전열 기구를 켜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감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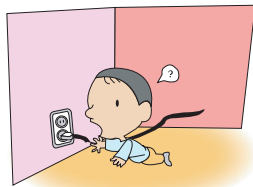
25

? 일반적인 전기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렇게 합니다.

- 전기기기 및 배선의 절연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노출시키지 맙시다.
-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접지)시켜야 합니다.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합니다.
-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맙시다.
- 수동 개폐기의 퓨즈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정격 퓨즈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개폐기(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테스트 버튼을 눌러 차단되는지) 합니다.
- 불량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맙시다.
-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접속하여 사용하지 맙시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기기에 유아의 손이 닿는 것은 위험합니다.

? 침수지역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 늘어진 전선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맙시다.
-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을 때는 원인을 제거한 후 사용합니다.
- 가옥이 침수되었을 때에는 개폐기를 내려두고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침수된 가옥 수리 시 손상된 전선은 교체하도록 하고 가옥과 배선부분이 완전히 건조된 후 사용합니다.
- 넘어진 전주·가로등 등 파손된 전기시설물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합니다.



가스사고

26

? 가스사고에 대비합시다.

-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냄새로 우선 확인합시다.
- LPG는 바닥으로부터, 도시가스(LNG)는 천정으로부터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 불쾌한 냄새가 나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것입니다.
-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빨래, 스프레이 통 등)을 가까이 두지 맙시다.



? 가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 가스 불을 켤 때에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합시다(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점화 코크가 열리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를 조절합시다. 불완전연소 시 유독성가스와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연료 소비량도 많아집니다.
-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으로 인해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가능한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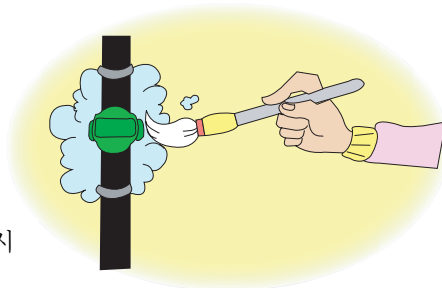
-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주 확인합니다.
-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구멍에 음식찌꺼기 등이 끼어있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가스를 사용하신 뒤 인가요?

- 가스사용 후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꼭 잠가야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용기밸브도 잠그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메인 밸브를 잠가야 하며 이사를 갈 때에는 도시가스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가스레인은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 평소엔 이렇게 점검합니다.

- 주방용 액체세제와 물을 1: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거품을 내어 배관, 호스 등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누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 가스레인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버너의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 취침 전에는 반드시 점화코크와 중간밸브가 꼭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주의를 줍니다.



주방용 세제로 거품을 내어 수시로 누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가스누출로 중독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응급조치 합니다.

-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신선한 장소로 옮깁시다.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 시킵시다.
- 입안의 이물을 제거합니다.
- 호흡이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 고압산소 호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휴대용 부탄 가스레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 휴대용 가스레인은 야외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부득이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밖에서 사용 시험을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 다 쓴 용기(캔)는 잔류가스를 구멍을 내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휴대용 부탄 가스렌지〉

- 야외에서 사용합니다.
- 밀폐된 장소에서는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사용 후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어 잔류가스를 방출하고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 용기(캔)를 접속할 때는 완전히 결합이 되게 합니다.
- 용기 상단의 절개된 홈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접속해야 합니다.
- 사용 중에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신속히 연결레버를 위로 올려 용기(캔)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 사용하는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으면 화기가 가스용기(캔)를 가열하게 되어 폭발의 원인이 되므로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밀폐된 텐트 안이나 좁은 방에서는 질식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실내에서 사용 시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하며, 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산소부족과 일산화탄소의 발생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질식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승강기사고

27

?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는 이렇게 예방합니다.

-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탑승정원이나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작반의 인터폰,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맙시다.
- 버튼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난폭하게 다루지 맙시다.
-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지 맙시다.
-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흔들거나 손으로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맙시다.
-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 비상환기구는 탈출구가 아니므로 열려고 하지 맙시다.
-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굉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있으면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출입문의 문턱 틈이나 문 사이에 이물질을 버리지 맙시다.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고, 빌딩 내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지상 층으로 불러들여 문을 닫고 정지시켜야 합니다.

?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이용합니다.

- 의복, 스카프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핸드레일을 잡고, 황색 안전선 안쪽에 타야 합니다.
- 가장자리에는 발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 유아와 애완동물은 안고 타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손을 잡고 타야 합니다.



- 천천히 타도록 하고, 우측에 서서 가야 합니다(왼쪽은 보행자를 위해 비워 둡니다).
- 주행방향을 거슬러 타거나 장난을 하지 맙시다.
-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합시다.
- 계단에 앉거나 맨발로 타지 맙시다.
- 동전, 열쇠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도록 합시다.
- 유모차 등은 접어서 들고 타야 합니다(수평보행기 제외).
- 화물을 싣거나 계단에 놓지 맙시다(수평보행기 제외).
-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맙시다.
- 핸드레일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음식물사고 (식중독)

28

? 음식물 사고에 대비합시다.

- 야채 · 식육 · 어패류 등 식재료는 신선한 것으로 구입합니다.
- 조리 전 ·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칼과 도마는 생선 · 야채 · 육류 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 냉장고가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냉장고의 온도와 유통기한에 주의합니다.
- 식재료는 잘 씻고, 식중독이 유행할 때에는 가열 조리합니다.
- 음식을 손으로 만질 때에는 반드시 비닐장갑을 사용합니다.
- 조리기구(그릇), 배수구 등은 언제나 청결히 유지하고 수시로 소독합니다.
- 행주, 수건, 수세미 등은 언제나 청결하게 사용합니다.
- 바퀴벌레, 쥐, 파리 등 해충 구제에 유의합니다.
- 구입 · 제조 연월일을 기입하여 날짜가 빠른 순서로 사용합니다.





?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 청 결
 - 청결한 손, 청결한 원료(재료), 청결한 조리기구 등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 속
 - 원료(재료)를 구입하여 신속히 조리하거나 조리된 식품은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합니다.
- 냉 각 (또는 가열)
 - 식중독균은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60℃이상의 온도에서 증식이 억제되므로 냉각 또는 가열합니다.

? 식중독 예방 10대 수칙

-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합니다.
- 철저하게 조리합니다.
- 조리된 식품은 빠른 시일 안에 먹어야 합니다.
- 조리된 식품은 적정온도로 저장합니다.
-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때에는 충분히 가열합니다.
- 날 음식과 조리된 식품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 손은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 부엌의 모든 곳을 아주 깨끗이 합니다.
- 식품은 곤충, 쥐, 기타 동물들을 피해서 보관합니다.
- 깨끗한 물을 이용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해외여행

29

? 테러를 예방합시다.

- 테러범들이 주인 없는 가방에 폭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이나 짐을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두지 맙시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의 가방은 말지 맙시다.
- 의심스런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할 경우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경비요원에게 신고 합시다.

? 테러범에게 납치될 경우를 대비합시다.

- 놀라거나 자제력을 잃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모든 구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부로 저항하지 말고 감시가 엄격할 경우에는 절대 도망치려 하지 맙시다.
-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역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을 기억하려고 노력합시다.
-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육성 녹음을 원할 경우 응합시다.
-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선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맙시다.



성 폭 력

30

? 성폭력, 성범죄는 이렇게 예방합니다.

- 대부분 범인은 수차례 사전 답사를 하니 빨래 건조대에 가끔씩 남자 와이셔츠나 속옷, 점퍼 등을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걸어둡시다.
 - 혼자 사는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빨래 건조대이다.
- 가끔씩 방에 전등이나 TV를 켜두고(저녁시간에 켜지도록 예약) 외출합니다.
 - 밤늦게 귀가하면서 불이 꺼진 집으로 들어가면 혼자 사는 여자로 여긴다.
- 현관에 남자 신발 한 켤레 정도 비치합니다.
 - 빨래건조대와 함께 범인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현관에 벗어둔 신발이다.
-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휴대전화나 주위 환경을 활용합니다.
 - “오빠, 집에 다 왔으니까 문 앞으로 나와”와 같이 연기를 해도 좋습니다.
- 범인은 대부분 창문으로 침입하니 방범창(최소한 잠금장치)을 설치합니다.
 - 3층 이상 고층일수록 안심하는 경우가 있으나 범인은 그 점을 이용합니다.
- 대부분 범인은 성도착증 환자이므로 거센 반항은 더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 반항하면 살해하거나 그것을 즐기는 변태적인 범인일 수 있으니 범인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대처합니다.
- 범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이니 먼저 범인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 범인을 안심시키고 탈출할 방법이나 외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몇 시에 누가 오기로 했다.” 등 외부인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 의심나는 방문객이 왔을 경우에는 식구가 많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 사정상 대부분 늦게 귀가하는 경우라면 호각이나 호신장비를 휴대하고 다닙시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성폭력 예방 7대 안전수칙

-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은 피하라.
- 남자의 호의에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
 - 잘 해 준다고 빚진 사람처럼 거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 페이스에 맡겨둔다.
-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미리 피하라.
 -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거나 단 둘만의 드라이브 제안은 거절합시다.
- 내가 어디에 누구와 같이 있는지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아라.
 - 상대방 앞에서 전화를 걸어 “누구와 어디 간다.” 등 자주 통화한다.
- 성폭행의 절반은 음주상태에서 일어난다. 절대 취하지 말라.
- 여성의 직감은 훌륭한 범죄 경보기다. 자신의 직감을 믿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결례가 되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라.
- 단호하게 행동하라.





어린이 생활 안전사고

31

?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고를 예방합니다.

- 교실이나 계단에서는
 - 연필이나 칼 등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장난치지 맙시다.
 - 친구가 모르는 사이 뒤에서 밀거나 넘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유리창에 몸을 기대거나 창틀위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 과학시간에는
 - 실험약품에 코를 대고 직접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알콜램프와 같이 불이 붙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다루도록 합니다.
- 미술시간에는
 - 접착제나 본드의 냄새를 함부로 맡아서는 안 됩니다.
 - 조각칼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바늘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체육시간에는
 - 운동하는 중간에 다른 친구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야구공과 같이 딱딱한 물체를 사람에게 함부로 던지지 맙시다.
 - 오르기 기구나 미끄럼틀에서 다른 사람을 밀지 맙시다.
 - 물기가 있는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에는 미끄러우니 조심합니다.
- 실과시간에는
 - 식칼이나 뜨거운 요리 기구를 들고 장난치지 맙시다.
 - 연장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정리정돈을 합니다.
 - 기름에 튀기는 요리는 가능한 하지 맙시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집에서 이렇게 사고를 예방합니다.

- 방과 거실에서는
 - 무거운 가구나 책장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창틀 위에는 올라가거나 장난감 등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 타일이나 마루바닥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계단에서는
 - 난간 위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뛰지 맙시다.
 - 지붕으로 통하는 계단문은 항상 잠궜 놓아야 합니다.
- 창문과 베란다 사이에서는
 - 창문이나 베란다에는 보호대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침대나 가구를 창문 가까이 배치하지 맙시다.
 - 창문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만한 물건을 창가에 두지 맙시다.
- 욕실과 화장실에서는
 -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설치합니다.
 - 욕실에 설치하는 거울이나 유리제품은 안전유리나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합니다.
- 주방에서는
 - 칼이나 포크와 같은 것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시다.
 - 어린이가 가스렌지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고 항상 중간밸브를 잠급시다.
 - 뜨거운 밥솥이나 냄비 뚜껑을 갑자기 열지 않도록 주의시킵시다.

? 도로에서는 이렇게 사고를 예방합니다.

- 길을 건널 때에는 육교나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고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건너 갑시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일 때엔 건너지 말고 초록색불일 때에도 차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한 후 건너갑시다.



- 공이 차도로 들어가거나 건너편에서 친구가 불러도 갑자기 뛰어가지 말고 차가 오는지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갑시다.
- 버스와 같이 큰 차의 앞뒤는 잘 보이지 않으니 버스 등이 지나간 후 다음 차가 멈춘 후 건너갑시다.
- 어린이는 자동차에 탈 때 뒷자리에 타는 것이 안전하며 항상 안전벨트를 합니다.
- 차 밑에 공이 들어가면 기어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차가 지나간 뒤나 운전자가 저씨에게 꺼내 달라고 합니다.
- 비 오는 날에는 우산으로 앞을 가리고 걷지 말고 좌우를 항상 살피면서 걸어갑시다.
- 추운 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사고가 나기 쉬우니 장갑을 끼고 다닙시다.

❓ 목욕탕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 목욕탕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거나 욕조에서 뛰어 내리지 맙시다.
- 목욕탕 바닥에는 물이나 비눗물이 있어서 미끄러우니 뛰어다니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 아빠 면도기로 장난을 치면 손이나 얼굴을 벨 수 있습니다.
-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뜨거우니 함부로 들어가지 맙시다.
- 목욕탕 중 냉탕은 수위가 높으니 어린이 혼자 들어가지 맙시다.
- 탕 속이나 수도꼭지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합니다.



목욕탕 바닥은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얼음판 안전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32

- 가급적 얼음위에서의 낚시, 빙상놀이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어린이가 빙상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시하고 사고에 대비합니다.
- 사고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119신고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 자신이 얼음판을 진입 하는 도중에 얼음판에 빠졌을 때 자력탈출 방법
 - 여러겹의 옷들로 인해 바로 가라앉지는 않으므로 우선 침착하게 행동
 - 아이스박스, 패트병 등 부력이 발생하는 도구를 이용
 - 걸어 들어왔던 방향으로 몸을 돌려 탈출 준비
 - 팔을 뻗어 몸이 가라앉지 않게 하고, 주머니를 뒤져 열쇠나 다른 쇠붙이를 찾아 얼음판을 찌고 몸을 엮드린 채 탈출 시도
- 타인이 얼음판에 빠졌을 때 구조방법
 - 얼음판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는 건식 구명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
 - 우선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지 않게 안전한쪽 얼음판에 몸을 의지하여 기다리게 유도
 - 주변에서 던질 로프나 장대 또는 사다리 등 구조할 사람과 빠진 사람을 연결할 도구를 이용
 - 부득이 구조할 사람이 얼음판에 올라야 한다면 서있는 것보다는 엎드려있는 것이 더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음
- 사고자를 구조하였을 경우에는 외투나 담요 등을 덮거나 불을 피우는 등 최대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회복 후에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정 전

33

? 불시 정전 사전대비 합니다.

- 불시 정전에 대비 가정 내 손 전등, 비상식 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둡시다.
- 전기기기(전열기, 난방기, 에어컨 등) 의 과부하 사용은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동시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의 전용회로를 구성 또는 전용콘셉트를 사용합시다.
-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보기 등 정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불시 정전이 발생했나요?

- 우리 집만 정전이 된 때는
 -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꺼두며 옥내 주택용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시다.
 - 옥내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공사업체 의뢰 수리합시다.
 - 옥내 전기설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한전에 연락합니다.
- 이웃집과 같이 정전이 된 때는
 - 대부분 한전 선로 고장인 경우로 신속히 복구되나,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으므로 동요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는 단재 내 선로 및 전기설비의 고장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연락 합니다.
- 엘리베이터 내에서 정전이 된 때는
 - 정전 등으로 조명이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 정전으로 운행이 정지되면 인터폰으로 구조요청하고 임의 탈출을 시도하지 맙시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불시 정전이 복구된 후 이렇게 하세요.

- 전기가 재공급되면 가전제품 하나하나마다 플러그를 순서대로 뽑으시다.
시간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하는 것이 과전류에 의한 손상방지가 가능합니다.
- 냉동식품을 점검합시다. 식품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의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바로 버립시다.



테러 위협시 (발생시)

34

?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

- 폭발음이 바로 옆에서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정황을 살핍시다.
- 폭발음이 바로 옆에서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정황을 살핍시다.
- 폭발음이 바로 옆에서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정황을 살핍시다.
 - 엎드릴 때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 폐 · 심장 ·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목 뒷덜미 · 귀 · 두개골을 보호해야 합니다.
 - 폭발이 2~3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피하되, 되도록 멀리, 큰길의 한가운데 등 개활지 쪽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충격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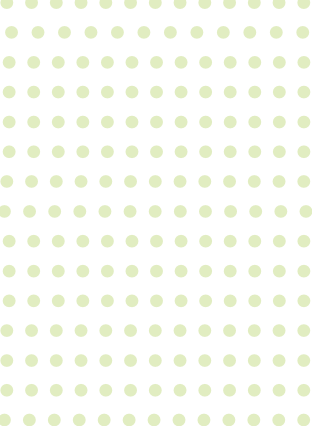
- 충기 난사 때 일단 엎드린 후 동정을 살피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고 갑자기 일어나 뛰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낮은 포복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충격을 받을 때는 자세를 낮추어 경비요원이나 작전요원이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상황이 끝나면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부상자를 구조해야 합니다.

? 억류 · 납치

- 만일 인질로 억류되었거나 납치 감금을 당했다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하라는 대로 응하고 급작스러운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탈출 성공 가능성이 아슬아슬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말해 100% 탈출 자신이 없으면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납치된 사람이 여럿(많은 수의 사람)일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처신하고, 납치범에게 위협적인 인상을 쓰는 것은 금물이며, 납치범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납치범들이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는 답은 되도록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 납치범이 무엇인가 지시할 때는 공손하게 순응하고,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며, 육성녹음을 요구할 때 기꺼이 응하도록 합니다.
- 건강 유지를 위해 계속 운동하고, 주는 것은 모두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약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건 외부에서 구출을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자제력을 잃지 말고 절망감을 느껴서는 안되며, 탈출로 등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 눈을 가리면 주변의 소리·냄새·피랍로 경사와 거리·범인 음성 등 기억 납치범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석방시기가 임박할 때도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여서도 안 됩니다.
- 구출작전이 전개될 때는 즉시 앞드려야 합니다.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

- 등 산
- 수영, 물놀이
- 자전거 안전수칙
- 놀이기구
- 유람선, 놀이배, 일반여객선 승선시 유의사항
- 벌에 쏘였을 때 대처요령
- 뱀에 물렸을 때 대처요령
- 유행성출혈열 등 예방 안전수칙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등 산

35

- 방풍·방수가 잘되는 등산복과 땀을 흘리고 나면 갑자기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겉옷을 한 벌 더 챙겨갑니다.
- 소금과 열량이 높은 초콜릿, 양갱, 육포, 사탕 등 비상식량을 챙깁니다.
- 전등, 물통, 나침반, 지도, 구급약품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안전하게 구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준비해 간 겉옷을 입고 장갑을 끼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가 저서 저녁이 되었거나 안개 등으로 앞이 안 보일 때는 무리하게 하산하지 말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야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날이 밝으면 나침반이나 주변의 지형을 이용하여 길을 찾아 내려옵니다. 특히 계곡(물)을 따라 내려오면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 나침반 없이 방향 찾는 방법
 -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작은 바늘(시침)이 태양을 향하게 하면 시침과 “숫자12”의 중간방향이 남쪽입니다.
 - 오래된 나무의 이끼가 낀 방향이 북쪽이며, 나무가 흰 방향이 동쪽입니다.
 - 나이트는 남쪽으로 간격이 넓고 북쪽으로는 촘촘합니다.





- 비석이나 정상석의 글자가 적혀 있는 쪽이 남쪽입니다.
 - 북극성은 작은곰자리의 밝게 빛나는 마지막별로서, 북극성의 방향은 항상 북쪽으로 진북이라고 합니다.
-
- 출발하기 전에 발목과 무릎을 간단하게 풀어줍니다.
 - 산행은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1~2 시간 전에 마칩시다.
 - 기본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비상 구급장비를 챙겨갑니다.
 - 앞뒤 사람과 충돌하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간격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 올라오는 사람에게 내려가는 사람이 길을 양보하고, 어른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등산할 때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 불길이 번질 때는 무리하게 끄려하지 말고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불길을 피해 대피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수영, 물놀이

36

- 수영, 물놀이 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합니다.
- 물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적신 후 들어갑니다.
 -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 식후, 배가 고플 때, 심한 운동 후에는 물놀이를 피해야 합니다.
- 깊은 물로 떠밀거나 물속에 오래 있기 등의 장난을 치지 맙시다.
-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수영합니다.
- 야외 물놀이를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 신발이나 물건이 물에 떠내려가도 혼자 건지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구합니다.
-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수영해서는 안 됩니다.
- 추위를 느끼거나, 기운이 없을 때는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해 줍시다.
- 물기를 잘 닦고, 머리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은 부상이라도 반드시 치료하여야 합니다.
-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에 더욱 유의 합니다.
- 테마파크, 수영장 등의 시설물 표면은 미끄러우므로 뛰거나 장난 쳐서는 안 됩니다.
- 놀이기구 탈 때 안전손잡이를 꼭 잡아 충돌,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충돌할 수 있으므로 안전펜스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 물 미끄럼틀을 이용할 때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출발하여 앞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합니다.
- 물에 빠졌을때 대처요령
 -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 주변 어른들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주위의 밧줄, 튜브, 긴 나무막대기 등을 던져 구조합니다.
- 다리에 쥐가 났을 경우 대처요령
 - 물속에서 다리를 펴고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힘껏 당겨 근육을 늘려 줍니다.
 - 수영복에 미리 옷핀이나 뿔족한 것을 준비하고 이것으로 다리에 상처를 냅니다.
 - 몸에 힘을 빼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으며, 손과 상체만으로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으면 혼자서 물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중간 중간 물 밖에서 휴식을 취하면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수상 안전 수칙

- 결코 혼자서 수영하지 말 것.
- 자기를 도와줄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수영할 것.
-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수영할 것.
- 정해진 규칙을 준수할 것.
-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 하에 수영하게 할 것.
- 음주 후 수영 금지.
- 인명 구조원에 의하여 감시되는 지역에서만 수영할 것.
- 부유물(공기매트, 튜브)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지말것
- 수상 스포츠(제트스키, 모터보트 등)을 실시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 할 것.
- 해산물을 함부로 먹지말것

위험시 행동요령

-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물과 관련된 스포츠와 오락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생명을 잃는 숫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천, 강변, 우물, 저수지, 수체구덩이, 잠깐 고인 물에서도 익사사고가 발생하며 익사자의 50%가 수영 미숙으로 인하여 사망한다. 자기 자신을 구명할 수 있는 충분한 수영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감시나 보호를 받지 않는 하천이나 강에서 익사사고의 약 90%가 발생한다.

개인 안전법의 3가지 기본규칙

- 당황하지 말 것.
- 신중히 생각할 것.
- 힘의 소모를 절약할 것.
- 경련(쥐)
 - 수중에서의 경련은 손가락, 발가락, 팔 혹은 다리에서 일어나며 피로와 과도한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
 - 경련은 수영자가 당황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



- 영법을 변경하거나 문지르거나 주무르면 좋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펴주는 것이다.
- 조류
 - 수영자가 조류에 휩쓸렸을 때는 조류를 거슬러 뚫고 나오거나 조류와 싸워 이겨 내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 조류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수영한다.
- 잡초, 수초
 - 몸부림치거나 빨리 동작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조심스럽게 천천히 동작을 하여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피함.
- 위험련
 - 식사 후 과격한 운동이 원인.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일어남.
 - 식사 후 충분한 휴식과 소화 후에 물에 들어간다.
- 수중에서 옷 벗기
 - 제일 먼저 옷을 벗는다. (숨을 힘껏 들여 마신 다음 해파리 뜨기 자세) 바지와 상의를 차례로 벗는다.
 - 물이 지나치게 차갑거나 안전지대가 가까울 경우는 옷을 벗지 않아도 된다.
- 옷을 이용하여 뜨는법
 - 옷이 가늘고 성글게 짜여진 옷감으로 만들어진 의복, 셔츠, 바지 등은 물에 젖었을 때 여기에 공기를 넣을 수 있다.
 - 셔츠의 목 쪽에 공기가 새지 않게 조인다.
 - 숨을 크게 들이키고 둘째와 셋째 단추사이로 공기를 불어넣는다.
 - 셔츠의 등 쪽에 물거품 모양이 형성되어 뜰 수 있다.
- 물에 떠있기
 - 이 기술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장시간 떠있게 하는 기술이다.
 - 공기를 들여 마신 후 호흡을 멈추고 팔과 다리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 뒷머리가 수면에 뜨게 얼굴을 숙이고 뜬 채 잠시 동안 쉰다.
 - 입이 약간 수면위로 올라올 정도만 머리를 들어 동시에 입과 코로 호흡한다.
 - 팔과 다리 동작에 너무 힘을 주거나 턱이 수면 위에 올라오게까지 해서는 안된다.
 - 다시 휴식자세로 환원.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자전거 안전수칙

37

- 내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탄다.
- 머리 보호를 위한 헬멧, 편하고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교통표지와 신호등을 지키며, 길의 가장자리로 다닌다.
- 자전거를 타다가 좌·우회전을 할 때, 차선을 바꿀 때는 정확한 수신호를 보내야 한다.
- 특히 교차로에서 조심한다.
- 여럿이 다닐 때는 조금씩 간격을 두고 일렬로 간다.
- 복잡한 곳에서는 내려서 가고 주변의 자동차들을 조심한다.
- 자전거 한대에 두사람이 타고 다녀서는 안된다(13세 이하의 한명을 태울 수 있다).
-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묘기를 부리면 안된다.
- 조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자전거를 잘 정비해야 한다.
- 짐이나 책들은 짐받이에 싣고 다닌다.
-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자물쇠로 채워 놓는다.
-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게 조심해서 타야 한다.



자전거를 탈때는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며, 오른쪽으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갑니다.
-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도나 골목길을 달릴 경우 보행자가 우선임을 잊지 말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손을 놓고 운전하지 말며,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 바지는 아랫부분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며, 신발은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짐을 지나치게 싣거나, 뒷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핸들조작에 중심을 잃게되어 위험합니다.
- 우산을 쓰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타지 말며, 슬리퍼를 신고 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밤에 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반사체 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 내리막 길에서 과속으로 주행시 급정거를 하면 자전거에 무리를 주어 넘어질 염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내리막 길에서 과속 또는 무리한 급정거는 넘어질 염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합니다.
- 리프트를 탈 때 앞 사람의 스키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의자를 흔들면 위험합니다.
- 활주할 때는 충돌하지 않도록 앞 스키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넘어지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슬로프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합니다.
- 직할강과 점프 그리고 무리한 추월은 위험합니다.

■ 스노보드 안전수칙!

- 리슈 코드는 반드시 부착한다.
- 슬로프에서 부츠만 신고 걷지 않는다.
- 리프트를 탈 때 반드시 앞쪽 발에 보드를 부착한다.
- 코스 중앙에 앉지 않는다.
- 점프대를 만들지 않는다.
- 활주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보드 위에 앉아서 활주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이 달리는 길에 보드를 놓지 않는다.
- 슬로프 외곽에서만 휴식을 취한다.



■ 눈썰매 타기 전 준비 할 것!

- 눈에 젖지 않도록 방수가 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 동상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장갑, 목도리 등을 착용합니다.
- 눈썰매 타기 전 준비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합니다.
- 자신의 나이와 체격에 맞는 코스를 선택합니다.
- 발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므로 높은 굽의 신발이나 슬리퍼 등 뒤가 고정되지 않은 신발은 신지 않습니다.
- 활주로 위에 넘어졌을 때에는 뒷사람과 부딪치기 전에 빨리 썰매를 들고 내려옵니다.
- 앞서 출발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지 잘 확인하여 미리 충돌을 예방합니다.
- 도착직전에 거의 다 왔을 때는 안전펜스에 부딪치지 않도록 미리 속도를 줄입니다.



놀이기구

38

■ 정글짐

- 앞서가는 사람을 밀거나 당기면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 손을 놓으면 턱이나 머리를 부딪치게 되므로 봉을 꼭 붙잡고 이동합니다.

■ 시 소

- 한 쪽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면 반대쪽 사람이 떨어져 다치게 되므로 내릴 때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 시소가 움직일 때 뛰어 내리면 안 됩니다.
-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이 끼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미끄럼틀

-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 거꾸로 타고 내려오면 머리를 부딪쳐 다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밀지 말고 차례대로 내려갑니다.

■ 그 네

- 서서 타거나 무릎을 이용하여 타지 맙시다.
- 그네가 완전히 멈춘 후 내려야 안전합니다.
- 움직이는 그네 주변에 접근하면 부딪칠 수 있습니다.
- 그네에 올라가 흔들거나 줄을 꼬지 맙시다.



■ 놀이동산

-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 움직이는 놀이기구에서 일어서거나 손잡이를 놓으면 추락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선 밖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차례가 오면 질서를 지켜 올라타습니다.
- 손, 머리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충돌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 움직이는 기구에 발이나 신체 일부, 옷자락 등이 끼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뒤로 걸거나 뛰게 되면 다른 사람과 충돌하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 너무 찬 음식이나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유람선 · 놀이배 · 일반여객선 승선시 유의사항

39

4 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일

-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소에 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 유람선 등 대형유람선은 승선자 전원에 해당하는 구명동의 확보, 보관해야 합니다.
- 선장이나 선원은 구조대와 연락할 수 있는 장비(무전기 등)를 갖추고 운항합니다.
- 14세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가 동승하도록 하고 어린이들만의 승선은 금지합니다.
- 술에 만취한 자, 전염병 환자 등은 승선시키지 말고 정원을 초과한 승선은 금지합니다.
- 선원 및 종사자는 선박이 출발하기 전 다음사항을 꼭 점검합니다.
 - 선내 청결상태 및 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등
 - 소화기의 적정위치 배치 및 인화물질 반입여부
 - 승선자 유의사항 등 유사시 행동요령 주지

4 승선자가 지켜야 할 일

- 승선 전에 승선자 주의사항을 꼭 읽어봅시다.
- 승선 후에는 구명동의, 구명줄 등 구명장비의 보관위치와 사용요령을 알아둡시다.
- 소형선박은 전복의 위험이 있으니 선박내에서 위험한 행동이나 장난을 하지 맙시다.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음란 행위, 음주가무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배에 승선하기 전에 꼭 승선자 주의사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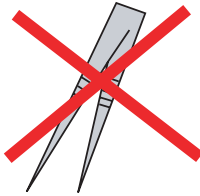




벌에 쏘였을 때 대처요령

40

-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과 밝은 계통의 의복을 피한다.
- 벌초 등 작업시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한다.
-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둘러 벌을 자극하지 않는다.
- 벌을 만났을 때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 야외 활동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벌침은 핀셋보다는 전화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좋다.
-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한다.
- 체질에 따른 과민반응에 의해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때는 편안하게 누워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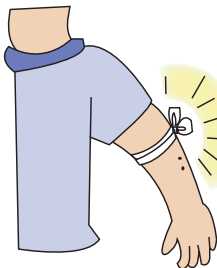
벌에 쏘였을 때는 핀셋보다는 전화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게 좋습니다.

여가활동 사고는 이렇게...

뱀에 물렸을 때 대처요령

41

- 등산, 벌초 등을 할 때에는 두꺼운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 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
- 뱀에 물린 사람은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다.
- 입에 상처가 없을 때 물린 부위를 약간 절개하고 입으로 독을 빨아낸다.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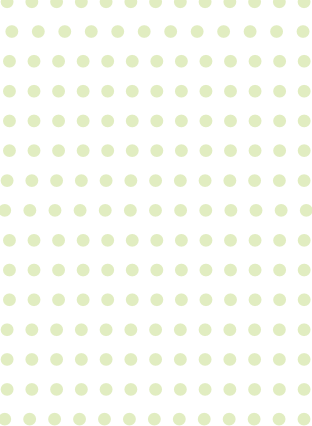
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 안전수칙

42

- 야외 활동시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장화,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들판에서 작업한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고 입은 옷은 세탁한다.
- 잔디나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는다.
- 성묘 및 야외 활동 후 1~3주 사이에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잔디나 풀밭에 그냥 눕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의 재해예방 내일의 행복약속

기타재난은 이렇게 ...

- 농기계 사고 예방
- 예초기, 낫 사용시 안전수칙
- 테 러
- 조류독감(AI)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기타재난은 이렇게...

농기계 사고예방

43

- 농기계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모자와 작업복을 착용합니다.
- 먼지와 유해가스 호흡방지를 위한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엔진이 뜨거운 상태거나 운전 중에는 급유를 하지 않습니다.
- 라디에이터 물 보충을 위해 캡을 열 때는 과열로 인해 증기나 끓는 물이 뿜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엔진 스위치를 빼고 내려야 합니다.
-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정해야 합니다.
- 야간주행시에는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작업등, 제동등)를 미리 확인합니다.
- 기계를 싣거나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서 합니다.
-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복·추락 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경사지를 주행할 경우에는 최저속도로 운행하고 작업기를 가능한 낮게 하여야 하며 주 클러치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 비상시를 제외하고 운행·작업 중에는 기계에 뛰어 오르거나 내려서는 안 됩니다.
- 동력전달장치, 회전부 등 위험부위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 점검·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작업기 밑에 머물거나 발을 놓지 않습니다.





예초기, 낫 사용시 안전수칙

44

- 예초기 사용시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합시다.
- 다쳤을 때에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한다.
- 작업 중 칼날에 부딪힌 작은 돌 등의 이물질이 눈에 박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오도록 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 눈을 비비며 이물질을 강제로 빼내려 하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가 상처가 악화 될 수 있다.



예초기 사용시에는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타재난은 이렇게...

테 러

45

테러신고는?

- 111(국가정보원), 112(경찰) 신속히 신고해 주세요.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방향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물처리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 라디오 · 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 (붕괴;건물높이 이상, 폭발;500m이상) 밖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피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 · 낙하물을 피하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폭발현장에서는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야 합니다.
-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 강당과 같이 기둥간격이 넓은 곳은 붕괴위험이 높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 유리 · 간판 · 전등 등의 비산 · 낙하물이 없을 만한 곳이나 책상 등의 아래에 피신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를 켜 놓아 붕괴 · 매몰시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학물질이 유포된 현장에서는

- 즉시 방독면을 찾아 착용하거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오염지역 내에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옆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 오염된 실내(건물)에서는 신속히 빠져 나와야 합니다.
- 오염지역을 벗어난 경우, 맑은 공기를 찾아 호흡하거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합니다.



조류독감(AI)

46

🔊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렇게 전파됩니다.

-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조류독감에 감염된 조류는 산란능력이 없으므로 달걀로 인한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하므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야생 조류인 철새 무리와 가금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양계사육시설을 자주 환기 해 주고 소독과 세척을 자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농장과 3km 이내 지역의 조류는 모두 살처분하여야 하며 농장 종사자들과 살처분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샤워,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 하는지 모니터 해야 합니다.
- 농장 종사자 이외의 일반 주민들은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십시오.
 -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경우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이나 가금류 전문 시장 등의 장소에는 가지 맙시다.

기타재난은 이렇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47

사스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주로 사스 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작은 침방울)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호흡기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 사스환자가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시기에는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스환자와 동거한 가족, 사스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등 직접적인 접촉을 한 사람들이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사스의 특징적인 증상은?

- 주로 발열(체온 측정시 38℃ 이상)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때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전신적인 불편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 일부환자에서는 초기에 미약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잠복기인 2~7일(최고 13일)이 지나면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이 나타나고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 환자의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만 10~20%의 환자에서는 호흡부전이 나타나고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사스예방법은?

- 현재까지 백신이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 사스 감염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 중 손 씻기를 철저히 합니다.
- 사스 감염위험지역 :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사스환자 치료방법은?

- 현재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없으며 중증비정형폐렴에 준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 비정형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항균제를 투여하고 항바이러스(oseltamivir 또는 ribavirin)제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를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경구 또는 정맥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48

신종인플루엔자 A (H1N1)이란?

- 사람에게 병증을 일으키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이전에는 발견된 적이 없으며 2009년 4월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돼지인플루엔자"로 불렸으나, 현재는 세계보건기구 공식 명칭인 신종인플루엔자 A (H1N1)으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 (H1N1)의 증상은?

- 보통의 인플루엔자와 비슷합니다. 발열과 기침 인후통과 몸살, 오한 두통 피로감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사와 복통을 보이기도 합니다.
- 어린이들, 임신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합병증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염이 되나요?

- 보통의 인플루엔자와 같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서 사람 간 감염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외출 후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고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 하시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시고 외출을 삼가시다.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시거나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킵시다.
- 평소 건강 생활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신종 플루를 이겨냅시다.

올바른 손씻기 6단계



감염이 의심되면 이렇게 대처합시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으십시오.
- 특히 고위험집단(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신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받고 투약받으십시오.
-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가슴통증,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투약받으십시오.



오늘의 **재해예방** 내일의 **행복약속**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

- 운행중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경우
- 교통사고발생시 처리방법
- 물에 가라앉고 있는 차에서 탈출하는 방법
-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을 때 대처요령
- 노상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요령
- 야외에서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
- 성냥 없이 불을 피우는 방법
- 응급 출산시 대처요령
- 얼음 구멍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
-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을 때 대처요령
- 이안류(바다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해류)에서 살아나려면
- 벼락 맞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 절단된 수족을 치료하는 방법
- 절단된 수족을 보관하는 방법
- 호흡곤란의 경우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방법
- 전화사기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 7가지
- 벼락을 피하기 위한 방법
- 사이버테러/정보보호(개인 및 기업체)
- 농약중독시 응급조치



운행 중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경우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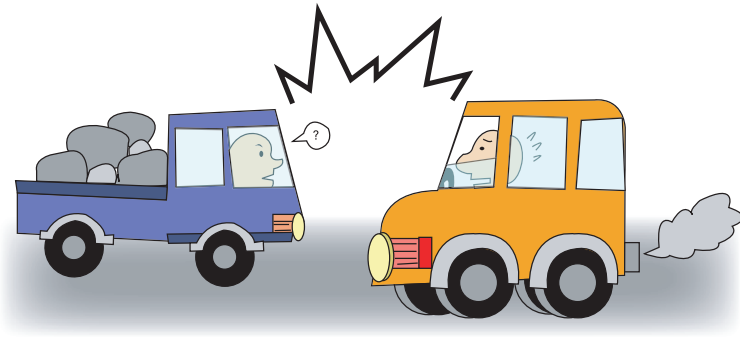
- 브레이크 페달을 펌프질 하듯 밟아주어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
 - 속력을 약간 늦추거나 완전히 멈추기에 충분한 압력을 만들 수 있다.
 - ABS장착차량은 이 방법이 불가능하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경우 속도는 줄일 수 있다.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자동차를 부드럽게 작동시킨다.
 - 자동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도 안전하게 커브를 돌 수 있다.
- 가장 낮은 기어로 낮추어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속도를 늦추게 만든다.
-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다.
 - 갑자기 세게 당기게 되면 자동차가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하오니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당긴다.
-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없다면 갑자기 회전하여 속도를 줄이도록 하자.
 - 어느 쪽이든 안전한 방향으로 핸들을 4분1정도 돌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힘껏 당긴다.
 - 코너를 지나갈 때 속도가 많이 줄게 되므로 코너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자.
- 직선에서는 핸들을 좌우로 급하게 틀면 차가 지그재그 주행을 하면서 속도가 준다.
- 다른 자동차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차를 이용하자.
 -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켜서 앞차 운전자의 관심을 끌고 범퍼끼리 충돌하도록 해서 속도를 줄인다. 단,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다.



낮은 기어로 변속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주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 자동차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것을 찾는다.
 - 길과 교차하는 평지, 언덕길, 들판, 울타리 등
 - 가드레일이나 기타 보호시설 등에 차의 측면을 가볍게 스치게 해 최소한의 피해로 차를 세우도록 한다.
(단, 이방법은 속도가 느릴 때만 사용하자.)
 - 나무나 전봇대 등은 더 위험할 수 있다.
(단, 앞에서 오는 차들과 스치려고 하지 마라.)
- 위의 어떤 방법으로도 자동차를 멈출수 없고 벼랑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그전에 무엇에든 부딪치기를 시도하라.



앞에서 오는 차들과 스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50

- 운전자는 자동차를 즉시 세우고 먼저 사상자의 응급처치, 즉 지혈, 인공호흡 등 조치를 취하면서 빨리 인근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 공무원 그리고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 수, 피해의 정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 보행자나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사고일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병원에 옮겨 진단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고 당사자 상호간의 주소와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명함 등에 기록해서 차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물적 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를 목격한 때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그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 그 밖의 차의 특징을 112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와 보험사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물에 가라앉고 있는 차에서 탈출하는 방법

51

- 물에 떨어지는 순간 창문을 열어라.
 - 자동차는 철판으로 만든 상자라서 물속에 잠겨도 바로 가라앉지 않으므로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 수면에 가까운 쪽의 창문을 내려 물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면 차 안과 밖의 수압이 같아지면서 차 문을 열 수 있다.
 - 안전을 위해서 물 근처나 얼음 위를 달릴 때는 창문을 약간 내려 놓는 것이 좋다.
 - 일단 물속에 잠기면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
- 만약 아무리 해도 창문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유리를 깨뜨린다.
- 차에서 나가라.
 - 엔진이 차 앞쪽에 있는 자동차는 수직으로 가라앉는다.
 - 물이 5m 혹은 그보다 더 깊으면 자동차가 뒤집혀서 가라앉을 수도 있다.
 - 차가 아직 물에 떠 있는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 차에서 나가야 한다.
- 창문을 내릴 수 없거나 깨뜨릴 수도 없으면 침착하게 차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린다.
 - 물이 머리까지 차오르면 차 안과 밖의 압력이 같아져서 차 문을 열고 헤엄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에 떨어지는 순간 창문을 엽시다.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뜨려 탈출!!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을 때 대처요령

52

- 열차가 들어오는 경우 승강장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떨어진 곳이 벽 근처라면 열차와 벽 사이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찾아보라.
 - 45~60cm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 열차에 휩쓸릴 수 있는 옷가지나 가방 등은 버린다.
 - 움직이지 말고 지나가는 열차를 향해 똑바로 몸을 세우고 서 있어야.
 - 상행선 하행선을 분리하는 기둥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으면 기둥 사이에 서라.
- 떨어진 곳이 승강장과 다른 노선의 선로 사이라면 다른 선로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로에서도 열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자.
- 콘크리트 승강장의 가장자리 밑에 열차를 피할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라.



열차가 들어오는 경우 승강장으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피할수 있는 공간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노상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요령

53

- 생명의 위협을 확실히 느끼지 않는다면 강도에게 반항하거나 싸우지 마라.
 - 강도의 목적이 당신의 지갑이나 다른 소지품이라면 그것을 주어라.
 - 당신의 생명은 그 어떤 소지품보다 귀하다.
- 만약 강도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급소를 공격하라.
 - 한방에 그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을 노려라.
 - 손가락으로 공격자의 눈을 콕 찌른다.
 - 강도가 남자라면 무릎으로 고환을 위쪽으로 강타한다.
 - 포도를 한 움큼 으개는 것처럼 공격자의 고환을 움켜쥐고 으스르뜨린다.
 -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혹은 손을 사용해서 강도의 앞쪽 목을 치거나 일직선으로 강하게 억누른다.
 - 팔꿈치 끝으로 강도의 갈비뼈 쪽을 강타한다.
 - 강도의 발등을 짓밟는다.
- 물건을 무기로 사용하라.
 -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로 급소를 공격한다면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 지팡이는 강도의 눈이나 고환을 찌를 수 있다.
 - 열쇠는 베거나 찌를 수 있다.
 - 자동차 안테나는 얼굴이나 눈을 찌르거나 후려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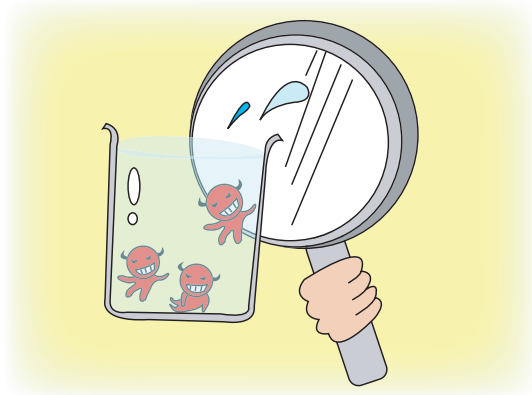




야외에서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

54

- 야외에서 마시기에 안전한 물은 여과, 약품처리, 끓이기, 증류법의 4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 샘, 강, 호수 등의 모든 물은 여과시켜 사용한다.
 - 여과장치는 커피 필터, 종이 타월, 일반 종이, 입고 있는 옷 등으로 만들 수 있다.
 - 양말 안에 부스러뜨린 숯, 작게 부순 돌, 그리고 모래를 교대로 한 층씩 채워서 효과적인 필터를 만들 수 있다.
- 필터를 통과 하도록 물을 부어라.
 -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
- 여과한 물은 불순물을 제거할 뿐 세균은 죽일 수 없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물을 여과시킨 뒤 약품 처리를 하거나 끓이는 것이다.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물이라도 세균이 숨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성냥 없이 불을 피우는 방법

55

■ 필요한 물건

- 칼, 불쏘시개, 불을 피울 나무(땅에서 줍기보다는 나무에 달린 죽은 가지), 활(길이 60센티미터 정도의 구부러진 나무 막대기), 끈(구두끈, 낙하산 줄, 가죽 끈, 질기고 섬유질이 많은 식물로 만든 밧줄), 기름(쿠치, 스킨 오일, 잔디 뭉친 것, 입술 연고 등), 축으로 사용할 막대기(직경 2~2.3cm, 길이 2~2.3cm), 나무 판자(두께 2~2.5cm, 넓이 5~8cm, 길이 25~30cm), 동우리(마른 나무껍질, 풀, 부들의 솜털 등 불이 잘 붙는 것으로 새둥지같이 만든다)
- 판자의 중앙에 끝에서 약 1.5센티미터쯤 안쪽으로 약간 오목하게 깎아 낸다. 그리고 이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향해 V자 모양으로 자른다.

■ 불을 피우는 법

- ① 막대기의 양끝을 끈으로 꽉 묶어 튼튼한 활을 만든다.
- ②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발로 나무판자를 단단히 누른다.
- ③ 두 손으로 활을 잡는다.
- ④ 활의 중앙에 끈으로 고리 모양을 만든다.
- ⑤ 막대기의 뾰족한 끝이 위로 가도록 고리에 축을 끼운다.
막대기의 축에 고리를 몇 번 더 감아 활 끈을 팽팽하게 만든다.
- ⑥ 왼손으로 소켓을 잡고 V자 형으로 자른 자리에 기름을 쳐 매끄럽게 한다.
- ⑦ 막대기의 둥근 끝을 나무판의 오목한 곳에 대고 뾰족한 끝은 위로 향하게 한다.
- ⑧ 소켓을 가볍게 누르고 축을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활을 앞뒤로 잡아당긴다.
- ⑨ 소켓에 힘을 가하면서 활을 당기는 속도를 높여 연기가 나고 숯가루가 생길 때까지 돌린다. 연기가 많이 날 때 불씨가 생긴다.
- ⑩ 연기가 많이 나 불씨가 생기면 활을 앞뒤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즉시 멈추고 막대기를 판자에 대고 가볍게 쳐서 불씨가 반침으로 튀게 한다.
- ⑪ 반침을 치우면서 불씨를 조심스럽게 동우리로 옮긴다.
- ⑫ 동우리를 꼭 잡고 계속 입김을 불어넣어 불이 붙으면 불쏘시개를 더 넣어 불을 피운다.



응급 출산시 대처요령

56

- 자궁이 수축하는 시간을 잰다.
 - 초산인 산모가 약 3~5분 간격으로 40초 내지 90초간의 수축이 강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출산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준비가 될 때까지 자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 깨끗한 마른 타월과 깨끗한 셔츠 등을 준비한다.
- 아기의 머리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아기의 머리를 받고 몸을 받친다.
 - 아기를 올게 만들려고 엉덩이를 찰싹 때리지 마라. 저절로 숨을 쉴 것이다.
- 밖으로 나온 아기의 물기를 닦아주고 따뜻하게 해준다.
 - 분만 즉시 이물이 기도를 폐쇄하지 않도록 아기의 머리를 다른 신체보다 약간 아래로 향하게 눕히고 입안에 든 이물을 제거한다.
- 아기의 몸으로부터 10cm 정도 떨어진 곳의 탯줄을 구두끈이나 다른 줄로 묶는다.
 - 탯줄은 아기가 병원에 도착 할 때까지 그냥 둔다.
 - 만약 병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라면 산모 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을 다시 묶은 후 두 매듭 사이를 자른다.
 - 출산이 끝나면 3~30분 사이에 태반이 나온다.
 - 태반은 깨끗한 대야,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산모와 함께 병원으로 운반한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얼음 구멍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

57

- 침착하게 숨을 쉬면서 왔던 방향으로 몸을 돌려라.
 - 빠지기 전까지 왔던 곳은 튼튼하게 얼어있는 지역일 것이다.
- 팔꿈치를 사용해서 얼음 구멍의 가장자리로 몸을 올려라.
 - 아직 나가려 하지 말고 그 자세로 가능하면 옷에서 물이 많이 빠지게 한다.
- 가능하면 멀리 단단한 얼음이 있는 곳까지 팔을 뻗어라.
 - 열쇠, 빗, 또는 얼음의 표면을 팔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다.
- 마치 수영을 하는 것처럼 발을 차면서 몸을 끌어 올려라.
- 일단 얼음 위로 올라서면 일어서지 말고 바닥에 엎드려서 몸을 굴린다.
 - 몸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얼음이 다시 깨질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얼음에서 빠져 나온 후엔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
따스한 곳에서 몸을 녹입니다.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을 때 대처요령

58

- 구명보트를 옮겨 타기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타고 있던 배에 머물러 있어라.
 - 구명보트보다 고장 났더라도 침몰할 위험이 없는 큰 배가 훨씬 안전하다.
 - 만약 배가 가라앉고 있으면 구명보트를 사용해야 한다.
 - 공해상을 항해하는 4.3m 이상의 선박은 어떤 배든지 구명보트를 가지고 있다.
 - 그보다 작은 배에는 구명 재킷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육지 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
- 필수품은 가지고 갈수 있는 한 가지고 구명보트에 타라.
 - 물병은 반드시 챙기자. 최악의 경우에는 나중에 건질 수 있는 거리에 물병을 던진다.
 - 통조림은 물로 꽉 채워져 있으므로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간다.
 - 기타 필수품 : 시계, 안경, 알루미늄캔, 나침반, 알루미늄 호일
- 바닷물이 차거나 추운 환경에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한다.
- 가능하면 식량을 찾아라.
 - 구명보트 구명대(救命袋) 안의 낚시 바늘로 물고기를 잡는다.
 - 만약 낚시 바늘이 없으면 철사줄이나 빈 깡통을 잘라서 임시로 만든다.
- 자신이 있는 곳을 알면 육지를 향해 가도록 노력하라.
 - 자신의 힘을 소모시키지 말고 보트에 있는 작은 노를 사용하자.
- 근처에서 비행기나 배가 지나가면 신호를 보낸다.
 - 주의를 끌기 위해 무전기, 신호탄, 작은 거울 등으로 신호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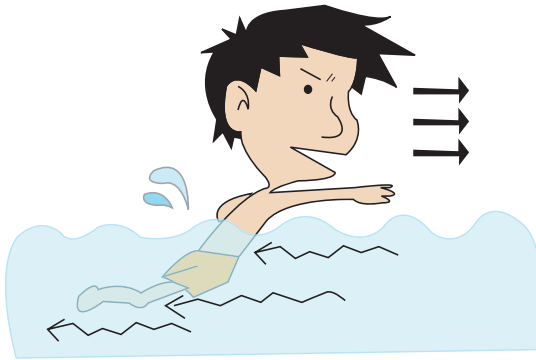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이안류(바다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해류)에서 살아나려면

59

-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지 마라.
 -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해류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익사가 원인이다.
 - 해류를 무리하게 거슬러 헤엄치려다가 지쳐서 해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 해안을 향해 헤엄치지 마라.
 - 해류에 대항하다가 체력이 소진될 것이다.
 - 이안류가 가라앉으면 옆으로 헤엄쳐 나와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 해안과 평행하게 이안류를 가로지르면서 헤엄쳐라.
 - 이안류의 넓이는 보통 30m를 넘지 않으므로 수영해서 건너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 이안류에서 나올 수 없으면 그 수역을 넘어갈 때 까지 위를 향해 반듯이 누워라.
 - 일반적으로 해안으로부터 45~90m에서 소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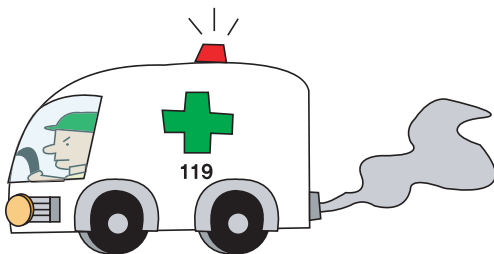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 하지 말아라!



벼락 맞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60

- 신속히 119에 연락해서 현장상황 및 위치를 알린다.
 - 벼락을 맞은 사람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
 - 벼락을 맞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의식을 잃은 사람을 먼저 치료한다.
 - 의식이 없지만 숨을 쉬는 사람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된다.
- 우선 나 자신과 피해자가 벼락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한다.
- 바닥에 깔개를 깔아 저체온증을 예방한다.
- 만약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입으로 인공호흡을 한다.
 - 5초마다 숨을 불어 넣는다.
 - 만약 피해자를 이동 시키려면 옮기기 전에 몇 번 빠르게 숨을 불어 넣는다.
- 희생자의 맥박을 측정한다.
 - 목옆에 있는 경동맥의 맥박을 체크 하거나 대퇴동맥(서혜부)을 적어도 20~30초 동안 체크한다.
- 맥박이 뛰기 시작하면 필요한 호흡법을 계속하라.
- 만약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장 압축법을 시작한다.
 - 20~30분 동안 힘껏 노력했는데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중지하라.
 - 몇 분 안에 반응이 없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빠른 응급처치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절단된 수족을 치료하는 방법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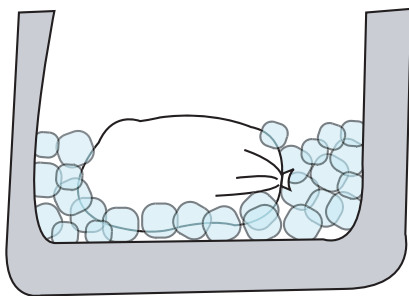
- 잘린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동맥을 찾아 가장 피를 많이 흘리는 대동맥을 꼭 집어라.
 - 팔의 상박동맥과 다리의 고동맥을 찾아야 한다.
 - 희생자든 다른 사람이든 대동맥을 계속 꼭 잡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 지혈대를 감아라.
 - 적어도 2.5cm 넓이의 천으로 풀리지 않게 꼭 잡아매고 절단 부위 가까이에 묶는다.
 - 지혈대를 너무 조이지 말고 적당히 맨 후 동맥은 계속 꼭 잡고 있다.
너무 조이면 살아 있는 조직을 으스러뜨리거나 파괴할 수도 있다.
- 잡고 있는 혈관의 끝을 묶어라.
 - 낚시줄, 치실 등 튼튼한 실을 사용한다.
 - 바늘에 실을 꿰어 혈관 주위를 단단히 꿰맨다.
 - 꿰맨 곳이 터질 경우에 대비해 두 군데를 묶을 수도 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잘린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 상처에 낀 이물질을 떼어낸다.
 - 상처에 달라붙어 있는 으스러진 나머지 조직을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낸다.
 - 물을 세게 뿌려서 상처를 씻어낸다.
- 나머지 피가 나오는 혈관을 뜨겁게 달군 쇠나 금속으로 태운다.(선택사항)
- 지혈대를 푼다.
 - 압력이 줄어들면서 묶은 것을 점검할 수 있고 더 묶어두는 것이 필요한지 혹은 소작하는 것이 필요한지 확인 할 수 있다.
 - 피가 조금 스며 나오면 지혈대를 제거 할 수 있다.
 - 잘린 부위의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혈대를 90분 이상 감아서는 안된다.
 - 출혈이 다시 심해지면 지혈대로 꼭 묶는다.
- 절단된 부위를 치료한다.
 - 항생제 연고를 잘린 부분에 바른 후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단단히 감싼다.
 - 치료한 부분을 압박 붕대로 단단히 감을수록 출혈이 적어진다.
- 출혈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상처부위를 높이 올린다.
- 치료한 곳에 얼음 팩을 한다.
- 혈액 손실로 인한 통증과 쇼크에 대비한다.



절단된 수족을 보관하는 방법

62

- 절단된 부분을 물로 부드럽게 씻어낸 후 축축하고 깨끗한 천으로 싼다.
- 잘린 부분을 비닐 팩과 같은 물이 스미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얼음에 채워 보관한다.
 - 잘린 수족을 물속에 담그면 재 접합을 방해하는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 차게 보관한다.
 - 얼리면 조직이 파괴되므로 얼리지는 않는다.
- 즉시 병원으로 가라.
 - 6시간 안에 봉합하면 기능이 회복 될 수 있다.
- 외상으로 수족이 절단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은 아니다.
 -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출혈을 막고 통증과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다.
 - 출혈이 심하면 몇 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얼음을 채워 보관하되 얼리면 안된다!
잘린 수족을 물속에 담궈서도 안된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호흡곤란의 경우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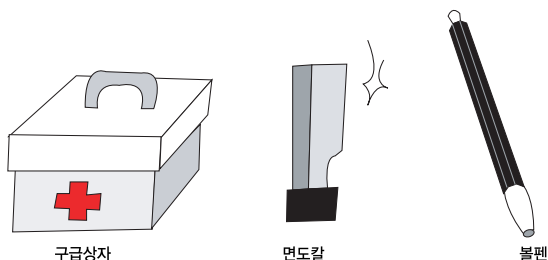
63

■ 필요한 준비물

- 가능하면 구급상자
- 면도날 혹은 매우 날카로운 칼
- 스트로(2개가 좋음) 혹은 잉크튜브를 제거한 볼펜.
(뺏았던 종이나 판지를 둘둘 말아서 튜브로 사용할 수 있다.)

■ 시술하는 방법

- 환자의 갑상연골(목젖)을 찾는다.
- 목젖에서 2.5cm 아래를 만져보면 볼록 나온 윤상 연골이 있다.
- 두 연골 사이의 움푹 들어간 곳이 윤상 갑상막이고 그곳이 절개할 부분이다.
- 면도날이나 칼을 가지고 가로로 1.3cm 절개한다.
- 절개한 곳에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 넓힌다.
- 튜브를 그 안에 1.3~2.5cm 깊이로 집어넣는다.
- 튜브에 대고 빠르게 두 번 숨을 불어 넣는다.
- 5초 쉬고 다시 5초 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 넣는다.
- 만약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시행 했다면 환자는 의식이 돌아올 것이다.
- 힘들긴 하겠지만 그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기관절개술 시행시 필요한 물건들



전화사기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 7가지

64

-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말고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해야 하며 전화 사기에는 이렇게 대응하자.

- **납치 사기** : 미국 영화처럼 안전한지 납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믿겠다고 말하라. 실제 납치범들은 인질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흔적을 간직한다.

- **개인정보 도용** :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화로 무슨 기관에서 걸었다고 하면 쉽게 믿어버리는 데 큰일 난다. 무엇보다 고객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상담원이라면 내 개인정보를 모를 리가 없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러보라고 해서 확인받아야 하는 게 정확한 고객관리 서비스다. 설사 고객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쪽 잘못이지, 고객이 다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

한국은 전화주문 시에 고객의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실명 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없는 절차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에서는 그냥 카드의 유효기간과 이름 확인만 한다.

- **환급 사기** : 어디로 입금하라고 하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은행이나 통신사 등의 각 기관에는 고객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고, 이는 고객의 신청이 없는 한 모두 서면(우편)으로 통지된다.

제때 통지받지 못했다면 고지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혹시라도 정말 납부할 것을 잊어버렸다면 재청구서를 반드시 보내달라고 하자. 연체에 따른 이자는 얼마 차이나지 않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한 뒤라도 늦지 않다.

- **카드 사기** : 고객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사용하거나 문의할 때뿐이다. 카드 가입 시에 개인정보를 전화로 확인하는 일은 없다.

반드시 카드의 본인이 아니라면 부재를 알리고 그냥 전화를 끊는다.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 **수수료 등의 비용 청구** : 일이 끝나기도 전에 비용을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주택 계약금, 보증금 밖에 없다. 모든 일은 거래가 다 끝나고 나서야 청구하는 법이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부동산 감정 등에 드는 수수료 비용을 청구당하더라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자.

- **사기에 실패했을 때의 협박** : 사기에 실패하면 전화를 끊으면서 집과 전화번호, 이름도 다 안다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 전화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걸려오고 그들이 납치나 강도범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자.

원래 사기꾼은 머리는 좋지만 게으르다. 오히려 당신이 똑똑해서 실패로 돌아가 화가 난 것에 불과하다.

- **지혜로운 대처방법**

- ①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대응한다. 알려진 연락처나 기관 등에 직접 전화 걸어 확인해 보거나 본인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자.
- ② 개인정보는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혹시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사기일지 몰라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실제 전화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에서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불러주는 일은 전혀 없다. 오히려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불러주고 고객이 확인하는 게 맞다.
- ③ 처음부터 사기 같으면 일일이 따지지 말자. 그래봐야 열 받고 하루가 피곤할 뿐이다. 개인 핸드폰이 아니라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하고 빨리 전화를 끊는다.
- ④ 개인정보를 도용하기 위해(사기를 치려면 개인정보도 필요하다) 공짜로 뭘 주겠단거나 가입하라는 식의 전화에는 “이미 가입했습니다.” 혹은 “이미 있습니다.”하고 응수한다. 괜히 필요 없다고 했다가 오히려 설득하려 들어 더 피곤해진다.





벼락을 맞지 않는 방법

65

- 큰 천둥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은 번개가 곧 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 번개가 친 후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세어서 그것을 다섯으로 나누어라.
- 만약 번쩍하는 번개를 보고 우르르 쿵 하는 천둥소리를 듣는 사이의 시간이 30초가 안되면 즉시 더 안전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
 - 높은 장소, 탁 트인 들판, 교목 한계선 위의 산등성이는 피한다. 만약 넓은 공터에 있다면 납작하게 엎드리지 말고 두 손을 땅에 대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라. 전문적으로 등산하는 도중이면 바위 위나 금속의 성질을 갖지 않은 장비 위에 앉아라. 벼락이 쳤을 때 당신을 고정시키고 쉽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얇은 저지대는 물론 동떨어져서 서 있는 나무, 비를 피하거나 피크닉에 사용되는 대피소, 무방비 상태의 전망대를 피하라.
 - 야구장의 더그아웃, 송신탑, 깃대, 가로등, 야구장의 금속과 나무로 만든 외야석, 금속 울타리를 피하라. 캠핑 중이면 공터나 큰 나무 아래의 텐트를 피하라.
 - 골프 카트와 컨버터블을 피하라.
 - 바다와 호수와 수영장과 강물을 피하라.
-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 유리창을 올린 자동차, 트럭, 밴, 버스, 농사용 차량 등은 벼락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다.
 -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특히 케이블 TV)을 포함한 콘센트, 전기코드, 전선 달린 전기 장치를 만지지 마라.
- 벼락을 맞은 사람을 치료하는 법
 - ① 119에 연락해서 벼락에 대한 보고와 응급조치 요원에게 위치를 알려준다.
 - ② 당신 자신이 벼락을 피하기 위해 좀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
 - ③ 춥고 축축한 환경이라면 희생자가 저체온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닥에 깔개를 깔다. 저체온은 희생자의 회복에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④ 만약 희생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시작하라.
 - ⑤ 희생자의 맥박을 측정하라.
 - ⑥ 만약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장 압축법을 시작하라.
 - ⑦ 맥박이 뛰기 시작하면 필요한 호흡법을 계속하라.
 - ⑧ 20~30분 동안 힘껏 노력했는데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중지하라.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사이버 테러/ 정보보호(개인 및 기업체)

66

-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고 정보를 보안하는 일은 특별히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업무의 형태에 따라 복잡해 질 수 도 있습니다.
- 모든 컴퓨터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때론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한 명의 도둑이 오직 한 대의 차를 훔칠 수 있는 시간에 한 사람의 해커는 수 백, 수 천대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국가의 중대 기반을 무너뜨릴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① 항상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 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를 권장하며 정기적인 예방치료를 하십시오.
- ② 보낸이가 불투명한 전자우편은 개봉하지 마십시오.
 - 첨부파일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전자우편은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설명 확실 하다 하여도 일단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의심할 여지없이 수상하다면 파일과 첨부된 자료 모두를 지우고 또한 삭제된 파일 또한 모두 비워야 합니다.
- ③ 손쉬운 암호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한 최소 8글자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 하십시오.
 -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십시오.
 - 타인에게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 ④ 방화벽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보호하십시오.
 - 개인 컴퓨터에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방화벽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호 하거나 그룹으로 된 컴퓨터를 보호하는 하드웨어 방화벽을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 방화벽은 외부 자료를 받고자 할 때 원하지 않는 위험한 트래픽으로 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 하드 드라이브의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여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으십시오.
 - 불필요한 그룹에서의 운영보다는 개별적인 컴퓨터 관리가 바이러스의 침투로 부터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염시엔 침입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필요시 피해 시스템을 네트워크로부터 분리 시킵니다.



- ⑤ 중요한 자료를 백업하십시오. 수 많은 컴퓨터 사용자는 귀중한 자료를 잃어버린 고통을 경험 하였거나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료를 백업하고 복사본을 따로 보관 유지 하십시오.
- ⑥ 보안 업데이트의 패치를 다운받으십시오. 패치는 소프트웨어회사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패치를 실행하십시오. 또는 자동실행기능을 이용 하셔도 됩니다.
- ⑦ 일상적인 보안을 생활화 하십시오.
 - 운영시스템과 보안 프로그램을 점검 하십시오.
 - 항상 몇 겹의 잠금장치와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 하십시오.
- ⑧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 두십시오.
- ⑨ 항상 새로운 바이러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준비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농약중독시 응급조치

67

농약중독시 응급처치

■ 중독증상의 관찰

중독증상은 농약에 따라 여러 가지 특이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농약의 유효성분에 따라 특유한 증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므로 이를 잘 관찰함으로써 치료를 위한 기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독 발생시기, 발생상황, 흡입부위 등을 빨리 파악 조사하여 환자 치료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농약은 신경계통에 먼저 장애가 오기 때문에 신경성 증상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신경성 증상

- 눈동자의 크기(아주 작아짐)
- 침이나 땀이 나는가?
- 근육의 경련은 있는가?
- 맥박수는 빠른가?
- 의식장애는 있는가?

중독농약의 유효성분에 따라 특유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잘 관찰하여 치료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고 기본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 응급조치순서

중독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의사에게 알리고 의사가 도착하기 전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약제살포후 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연락을 할 때는 중독된 사람의 나이 등 인적사항, 어떠한 농약을 흡입하였는가 농약의 눈에 들어갔는가 등의 내용과 어떠한 증상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으며 의사가 올 때까지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는데, 기본적인 응급조치로는 독물을 체내에서 가능한 빨리 제거시키고 체내에서의 흡수작용 억제, 체력유지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응급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으로부터 중독인 경우

(가) 약액을 마셨을 경우 곧 위를 세척해야 합니다. 우선 2~3컵의 소금물을 마시게 하고 손가락이나 수저등으로 목구멍 깊숙히 눌러 토하게 합니다.

농약중독의 응급처리로 농촌에서 흔히 소금을 먹고 토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를 자극하여 구토를 유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으로 유입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유나 계란 흰자를 마시게 하고 손가락을 목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을때, 몸에 경련증세가 있을 때, 석유계통의 용제를 마셨을 때에는 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 토한 액에서 약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고 만약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는無理하게 물을 먹여서는 안됩니다.

(다) 설사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황산나트륨(Na_2SO_4), 30g을 250ml의 물에 녹여서 먹이든지 또는 황산고토(MgSO_4)를 대신 먹이든지 합니다.

■ 피부로부터의 중독인 경우

(가) 옷을 벗기고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어 주어야 하며 특히 파라치온과 같은 유기 인계 농약은 알칼리에 분해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비눗물로 씻어야 합니다.

(나) 중환자로서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을 먼저 시키고 피부를 씻는 것이 좋습니다.

■ 흡입에 의한 중독인 경우

(가) 환자를 공기가 맑고 그늘진 곳에 옮겨 상의 단추나 허리띠를 호흡하기 쉽게하고 가능하면 걷지 않도록 합니다.

(나) 피부염이 일어날 정도면 물로 잘 씻고 올리브유 등 식물성기름 또는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바릅니다.

(다) 눈이 가렵거나 꺼칠꺼칠한 때는 빨리 맑은 물로 씻거나 수도꼭지를 이용하는 등 흐르는 물에 5분이상 계속 씻어야 합니다.

(라) 눈에 농약이 들어갔을 경우 주전자의 물을 흘러 내리게 하여 눈을 씻은후 따뜻한 물(약38℃)을 담은 세면기에 얼굴을 담그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15분 이상 씻어 주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응급조치

■ 오염물제거

- 피부오염 : 약이 묻은 옷을 벗기 비눗물로 목욕
- 눈오염 : 맑은 물로 15분간 반복하여 씻어냄
- 음독 : 구토 → 따뜻한 소금물 1~2컵 정도 마시고 인위적으로 토하게 함
- 독물흡수제거
- 음독에 의한 중독시 설사제와 함께 활성탄(숯가루)을 복용

※ 위에서 설명한 응급조치 외에도 중독환자는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는 것이 좋으며 의사에게 데리고 갈 경우에는 환자의 체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들 것 등에 태워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식불명인 환자를 토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옆드리게 하여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하고 입을 벌려 토하게 한 후 입안을 깨끗이 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부록

- 응급처치요령
- 태풍의 이름
- 재미있고 과학적인 날씨 속담
- 나의 재난예방 점수 알아보기
-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기상특보 종류와 발표기준
- 알아두면 편리한 전화번호
- 참고문헌 또는 자료출처

응급처치 요령

응급처치 요령

적절하지 않은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먼저 119 또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한 후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시기 바라며 평소 응급처치 방법을 잘 익혀 둡시다.

① 화상이나 물에 덴 상처

-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 화상 부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끈을 조임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 상처 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를 덮습니다.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맙시다.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맙시다.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궈 둡니다.

② 열로 인한 질환 예방

-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되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 음료수를 많이 마시되 술은 마시지 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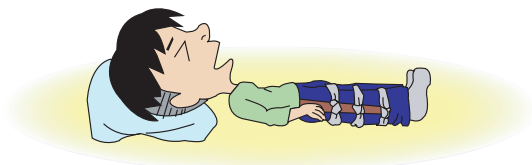




- 이온음료를 마실 경우 소금을 따로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 모자를 쓰고, 목을 감싸는 옷은 피하며 헐렁한 옷을 입읍시다.
- 가능한 시원한 시간대에 일을 합시다.
- 열 경련이 발생하였을 때
 -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해주고 의식이 있는 경우 입으로 이온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 일사병이 발생하였을 때
 -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누어두고 옷을 벗겨줍니다.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 음료 또는 물을 줍니다.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습니다.
- 열사병이 발생하였을 때
 -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주고 부채질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속히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 혈관이 수축되지 않을 정도의 너무 차지 않은 물로 자주 닦아주고 바람을 일으켜 열이 증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③ 골절 처치법

-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합니다.



골절 부분을 꼭 고정시켜 줘야 합니다.

응급처치 요령

④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때(심폐소생술)

- 먼저 환자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고,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진단해 본다.
 -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머리와 몸을 동시에 움직여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얼굴을 위로 향하게 눕힌다.
- 입술과 아래턱을 밀어서 입을 벌린다.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연다.
 - 이때, 환자의 목구멍과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 얼굴을 환자 입 가까이 대고 가슴이 오르 내리는 것을 관찰한다.
 - 호흡을 체크하기 위해 10초 이상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
- 환자의 호흡이 없으면 구강 대 구강법을 실시한다.
 - 기도를 유지하고 환자의 코를 잡고 입 속으로 두 번 불어준다. 이때,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 10초 동안 환자가 호흡·기침 또는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여 없으면, 심장이 멈춘 것으로 생각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호흡·기침 또는 움직임이 있으면,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때까지 구강 대 구강법으로 1분에 12~20회 공기를 불어 넣는다.



평소에 구강대 구강 호흡법을 익혀두도록 합니다.



- 심장이 멈추었으면 아래 방법으로 외부 흉부압박을 한다.
 - 손바닥 중앙을 흉골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는다.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약 4~5cm 정도 환자 가슴을 눌러 준 다음 힘을 뺀다.
 - 분당 100회 속도로 15회 흉부를 압박한다.
- 구강 대 구강법으로 두 번 공기를 불어 넣어 주세요.
 - 머리를 뒤로 젖히고, 기도를 열어준 후 환자의 코를 잡고 시행한다.
- 매 15회 흉부압박이 끝날 때마다 두 번 불어넣기를 시행하고, 최초 1분 후와 매 5회마다 호흡·기침·움직임을 확인한다.
- 환자의 호흡이나 기침 또는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즉시 흉부압박을 중지하고 호흡을 확인해 주세요.
 - 호흡이 없으면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때까지 구강 대 구강호흡을 계속한다.

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 (의식이 있을 때)

- 환자에게 기도(숨)가 막혔느냐고 물어본다.
-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거나,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이물질질을 뱉어내도록 하는 노력을 방해하지 맙시다.



응급처치 요령

- 스스로 뱉어내지 못하면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복부 밀기를 실시한다.
- 환자 뒤에 서서 환자 허리둘레를 두 팔로 감싸 안는다.(하임리히법).
 - 한쪽 주먹을 다른 한손으로 감아쥐고, 안쪽 손은 엄지 쪽이 신체 정중선 배꼽 바로 위로 가게 한다.
 - 안쪽 손을 환자 등 뒤와 위쪽으로 빠르게 밀어 준다.
 - 복부 밀어주기는 기도폐색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힘으로 실시한다.
- 만약 환자가 임신후기이거나 비만이라면 가슴 밀어주기를 실시한다.
 - 환자 등 뒤에 서서 두 팔을 환자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가슴을 안는다.
 - 복부 밀어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쪽 손은 엄지 쪽을 안쪽으로 하고, 다른 손으로 감싼 다음 환자 흉골 위에 놓는다.
 - 등 쪽으로 빠르게 밀어 준다.

⑥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환자 머리와 목을 조심스럽게 지지하여 등을 돌려 눕힌다.
- 환자의 입을 벌려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호흡을 확인한다.
- 숨을 쉬지 않으면 구강 대 구강호흡법을 실시한다.
- 만약, 환자의 가슴이 올라가지 않으면, 환자 자세를 수정한 다음 호흡을 다시 불러 넣는다.
- 이번에도 가슴이 올라가지 않으면 흉부압박을 15회 실시한다.
- 가슴밀기를 위한 손 위치는 심폐소생술 실시 때의 손 위치와 동일하다.
- 입안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 기도를 열어주고 호흡을 확인한다.
- 기도를 폐쇄했던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⑦ 유아가 숨을 쉬지 않거나 울지 못할 경우

■ 엎어 등 두드리기 5회

- 검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영아의 턱에 대고 머리와 목을 받쳐서 한 손으로 영아를 들어 올립니다.
- 영아의 머리가 바닥을 향하게 하여 처치자의 팔 위에 놓고,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합니다. 처치자는 아기를 안은 팔을 자신의 허벅지에 고정시킨다.



엎어 등 두드리기

■ 다시 뒤집어 가슴 밀기 5회

- 영아의 뒷머리를 받쳐주세요.
 - 영아의 등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며 천천히 양팔 사이에 놓는다.
 -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합니다.
 - 처치자의 몸집이 작은 경우 아이를 안은 팔을 처치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다.
 - 유두 사이에 가상 선을 긋습니다.
 - 손가락 세 개를 흉골 위에 올려놓되 약지를 영아의 발쪽으로 하며 가상선 위로 이동시켜 주세요.
 - 약지를 가슴에서 뺍니다. 흉골 끝의 V자 부분이 느껴지면 약간 위로 이동합니다.
 - 검지와 중지를 흉골에 올려놓고(심폐소생술과 비슷하나 속도는 조금 천천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5회의 압박을 시행합니다.
 - 가슴 밀기를 실시할 때 손가락을 가슴에서 떼지 않습니다.
- 영아가 의식을 잃거나, 이물이 배출되거나, 힘차게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 때까지 계속 반복 실시합니다.



다시 뒤집어 가슴밀기

응급처치 요령

⑧ 아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

- 반응을 확인합니다.
 - 척추 손상이 의심되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영아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본다.
-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구조요청을 부탁한다.
 - 아무도 없으면 1분 동안 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에 연락합니다.
- 천천히 두 번의 숨을 불어넣어 준다.
 - 기도를 개방(머리 뒤로 젖히기/턱 올리기) 한다.
 - 처치자의 입으로 영아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는다.
 - 천천히 숨을 두 번 불어넣는다.
(1회 시간 : 1~1.5초).
 - 첫 번째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를 다시 뒤로 젖히고 천천히 두 번 숨을 불어 넣어준다.
- 5회 등 두드리기를 실시한다.
 -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영아의 턱에 대고 머리와 목을 받쳐서 한 손으로 영아를 잡는다.
 - 영아의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하여 팔위에 놓는다.
 -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다.
 - 영아를 안은 팔을 허벅지에 고정시킨다.
 - 손바닥으로 영아의 어깨죽지 사이(견갑골)를 5회 두드려 준다.



5회 등 두드리기



■ 5회 가슴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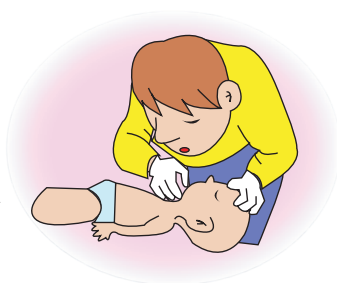
- 영아의 뒷머리를 받쳐준다.
- 등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양팔 사이에 놓는다.
- 영아의 등을 받쳐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다.
- 처치자의 몸집이 작은 경우 아이를 안은 팔을 무릎 위에 놓는다.
- 유두 사이에 가상 선을 긋습니다.
- 손가락 세 개를 흉골 위에 올려놓고 약지를 가상선 위로 이동시킨다.
- 약지를 가슴에서 떼고 흉골 끝 V자 부분이 느껴지면 조금 위로 이동한다.
- 검지와 중지를 흉골에 올려놓고 심폐소생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실시하며 속도는 심폐소생술보다 느리게 한다.
- 가슴 누르기를 할 때 손가락을 가슴에서 떼지 맙시다.



5회 가슴밀기

■ 입 안의 이물 제거

- 영아의 턱과 혀를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고 들어 올린다.
- 이물이 확실히 보이면 새끼손가락으로 입 안을 쓸어낸다.
- 손가락을 구부려 이물을 쓸어낸다.
- 손에 닿지 않은 이물은 일부러 제거하지 않는다.
- 이물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입안의 이물질 제거

응급처치 요령

■ 반 복

- 천천히 1회의 숨을 불어 넣는다.
- 5회의 등 두드리기를 실시한다.
- 5회의 가슴 밀기를 실시한다.
- 입 안의 이물을 확인해 이물이 보이면 손가락으로 직접 제거합니다.
- 이물이 배출되거나 응급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 주변에 사람이 없고 1분 동안 소생술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엔 영아와 함께 있으면서 119에 연락합니다.

⑨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배워둡시다.

- 대한적십자사의 각 지사에서 매월 2회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가까운 소방서의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민간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태풍의 이름



2008년 개정된 태풍의 이름

국가명	1조		2조		3조		4조		5조	
캄보디아	담레이	Damrey	콩레이	Kong-rey	나크리	Nakri	크로반	Krovanh	사리카	Sarika
중 국	하이쿠이	Haikui	위투	Yutu	펑션	Fengshen	두쥘안	Dujuan	하이마	Haima
북 한	기러기	Kirogi	도라지	Toraji	갈매기	Kalmaegi	무지개	Mujigae	메아리	Meari
홍콩	카이탁	Kai-tak	마니	Man-yi	풍월	Fung-wong	초이완	Choi-wan	망온	Ma-on
일 본	덴빈	Tembin	우사기	Usagi	간무리	Kammuri	곶푸	Koppu	도카게	Tokage
라오스	볼라벤	Bolaven	파북	Pabuk	판폰	Phanfone	켓사나	Ketsana	녹텐	Nock-ten
마카오	산바	Sanba	우딕	Wutip	봉퐁	Vongfong	파마	Parma	무이파	Muifa
말레이시아	즐라왓	Jelawat	스팟	Sepat	누리	Nuri	멜로르	Melor	므르복	Merbok
미크로네시아	에위니아	Ewiniar	피토	Fitow	실라코	Sinlaku	네파탁	Nepartak	난마돌	Nanmadol
필리핀	말릭시	Maliksi	다나스	Danas	하구핏	Hagupit	루핏	Lupit	탈라스	Talas
한 국	개미	Gaemi	나리	Nari	장미	Jangmi	미리내	Mirinae	노루	Noru
태 국	쁘라삐룬	Prapiroon	위파	Wipha	메칼라	Mekkhala	니다	Nida	쿨랍	Kulap
미 국	마리아	Maria	프란시스코	Francisco	히고스	Higos	오마이스	Omais	로키	Roke
베트남	손띤	Son Tinh	레끼마	Lekima	바비	Bavi	꼰선	Conson	선까	Sonca
캄보디아	보파	Bopha	크로사	Krosa	마이삭	Matsak	찬투	Chanthu	네삿	Nesat
중 국	우쿵	Wukong	하이옌	Haiyan	하이선	Haishen	덴무	Dianmu	하이탕	Haitang
북 한	소나무	Sonamu	버들	Podul	노을	Noul	민들레	Mindulle	날개	Nalgae
홍 콩	산산	Shanshan	링링	Lingling	돌핀	Dolphin	라이언록	Lionrock	바난	Banyan
일 본	야기	Yagi	가지키	Kajiki	구지라	Kujira	곤파스	Kompasu	와시	Washi
라오스	리피	Leepi	파사이	Faxai	찬흠	Chan-hom	남테운	Namtheun	파카르	Pakhar
마카오	버빙카	Bebinca	페이파	Peipah	린파	Linfa	말로	Malou	상우	Sanvu
말레이시아	룸비아	Rumbia	타파	Tapah	낭카	Nangka	므란티	Meranti	마와르	Mawar
미크로네시아	솔릭	Soulik	미탁	Mitag	사우델로르	Soudelor	파나피	Fanapi	구출	Guchol
필리핀	시마론	Cimaron	하기비스	Hagibis	몰라베	Molave	말라카스	Malakas	탈림	Talim
한 국	제비	Jebi	너구리	Neoguri	고니	Goni	메기	Megi	독수리	Doksuri
태 국	망콧	Mangkhut	람마순	Rammasun	모라콧	Morakot	차바	Chaba	카논	Khanun
미 국	우토르	Utor	마트모	Matmo	아타우	Etiau	에어리	Aere	비센티	Vicente
베트남	짜미	Trami	할롱	Halong	밤꼬	Vamco	송다	Songda	사울라	Saola

날씨와 속담

재미있고 과학적인 날씨 속담

햇무리와 달무리가 나타나면 비가 온다.

- 햇무리와 달무리는 얼음 결정체인 얇은 구름이 해나 달의 주위를 덮게 되면 마치 프리즘 역할을 하게 되어 햇빛이나 달빛이 반사 또는 굴절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며
- 이런 무리는 지상에서 6~10km 상공의 깃털모양의 권층운에서 잘 나타나며 이 구름 뒤에는 기압골 또는 저기압이 접근하므로 비가 올 확률이 높다.(보통 60~70%)
- 무리 사이로 별빛이 보이면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만 분다.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는 갠다.

- 무지개는 태양광선이 빔방울에 의해서 반사 굴절되어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침 무지개는 서쪽 하늘에, 저녁 무지개는 동쪽 하늘에 나타난다.
- 아침 무지개는 서쪽에 비가 온다는 증거이고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있으므로 점차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곧 비가 온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번개가 잦으면 벼농사가 풍작이다.

- 7~8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권내에 들게 되어 몹시 무덥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지면이 가열되어 강한 상승기류가 생겨 번개를 동반한 적란운이 발달한다.
- 적란운은 무덥고 비가 자주 내려 고온다습을 좋아하는 벼의 생육에 도움이 되고 적란운이 동반한 번개는 땅속 비료성분에 작용하여 영양분의 분해를 촉진시키며 공중에 질소 및 이황산가스를 생성하여 비와 함께 땅에 떨어져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는 실험결과가 있으므로 번개가 잦으면 벼농사가 잘된다고 할 수 있다.



🔊 마파람(남풍)이 불면 비가 온다.

- “Buys Ballot의 법칙”에 따르면 바람을 등지고 서서 양 팔을 벌리면 왼손 조금 앞 방향에 저기압이 있고 오른손 조금 뒷 방향에 고기압이 있다. 그러므로 마파람(남풍)이 불면 서쪽에 저기압, 동쪽에 고기압이 있다.
- 우리나라가 속한 편서풍 지대의 기류특성에 따라 서쪽의 저기압이 다가온다는 뜻이니 비가 올 수 있다. 북풍일 볼 경우에는 반대인 경우이므로 날씨가 맑아진다.

🔊 가루눈이 내리면 추워지고 함박눈이 내리면 포근해진다.

- 온도가 낮으면 눈 결정체는 단단해지며 서로 부딪치고 엉겨 붙지 않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가루눈이 내린다는 것은 한랭한 공기가 지면 가까이 까지 내려 온다는 뜻이므로 추워진다.

🔊 비가 올 무렵이면 허리가 쑤시고 신경통이 난다.

- 신체는 수증기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상변화에 따라 교감신경계통이 조정되므로 저기압이 접근하면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어 체내 혈액이 모이게 되고 피부의 수분 발산이 억제된다.
- 따라서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내거나 신경통이나 허리가 쑤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동물의 경우에도 비슷한 반응을 나타낸다.

🔊 물독에 땀이 흐르면 비가 온다.

- 차가운 물이 담긴 물독 표면에 따뜻한 공기가 접촉하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순간 응결현상이 일어나 물방울이 맺히며 온도차가 심할수록,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수록 물방울의 양이 많아진다.
- 저기압이 접근해 오면 온도가 점차 높아지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독에 땀이 나며 이는 비가 올 징조라고 말할 수 있다.

날씨 속담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 제비의 먹이는 아주 작은 곤충류이며 곤충들은 비가 오기 전에 습도가 높아지면 날개가 무거워져 건조할 때 보다 날기 힘들고, 빗방울에 맞아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신처를 찾기 위해 지면 가까이로 날아다니므로 제비가 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낮게 날게 된다.

고구마 꽃이 피면 천재(天災)가 일어난다.

- 식물의 개화는 일조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구마는 낮이 짧아져야만(최적 시간 8~10시간) 개화하는 단일식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름철 낮의 길이가 긴 자연상태에서는 고구마 꽃이 피기 힘들다.
- 그러나 늦더위가 심하고 이상기온이 많았던 해는 일조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고구마 꽃이 많이 핀다. 그러므로 고구마 꽃이 많이 피는 해에는 오랜 장마나 기상재해가 발생하기 쉽고 다른 작물도 좋은 작황을 볼 수 없다.





나의 재난예방 점수 알아보기

간편한 재난상식 테스트입니다. 다음의 1단계에서 5단계의 각 항목별로 옳다고 생각되면 모두 체크하면 됩니다. 이 결과로 재난대비 수준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TEST 1단계

- ☐ 1. 나는 행운이 좋은 편이므로 내가 사는 동안 지진이나 화재, 홍수 등을 당하지 않을 것 같다.
- ☐ 2. 재난이 발생해도 우리집과 우리가족은 나혼자 충분히 지킬 수 있다.
- ☐ 3. 소화기는 5년에 한번씩 분말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주면 사용에 지장이 없다.
- ☐ 4. 집안에서 지진이 날 경우 무조건 집밖으로 대피 한다.
- ☐ 5. 홍수나 지진이 일어나도 다치지 않았다면 먹을 것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 ☐ 6. 화재가 발생하면 눈을 감고 불길을 가로질러 밖으로 뛰어 나간다.
- ☐ 7. 나는 우리가족 전체의 연락처를 외우고 있으므로 수첩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 ☐ 8. 폭설로 인해 차량에 고립된다면 계속해서 히터를 작동하여 몸을 따뜻하게 한다.
- ☐ 9.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해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 10. 방수 기능을 가진 성냥 같은 제품은 없다.

TEST 2단계

- ☐ 11. 오래되어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은 재난 대비에 효과가 없다.
- ☐ 12. 재난은 운이 나쁜 사람에게 발생하므로 나는 늘 기도를 해서 괜찮을 것 같다.
- ☐ 13. 홍수나 지진시에는 연필과 메모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 ☐ 14. 홍수시 차량 운행 중 침수로 시동이 꺼지면 시동이 걸릴때 까지 계속 시도하고 정비소에 연락한 후 침착히 기다린다.
- ☐ 15. 재난대비 용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다.
- ☐ 16. 화생방시 옷이나 휴지 등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
- ☐ 17.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가 심할 경우 재빨리 방독면을 착용하고 들어가 인명을 구조한다.

나의 재난예방 점수

- ☐ 18. 일반 캔(깡통) 제품은 적어도 5년 이상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 ☐ 19. 재난시에는 사람들이 매우 당황 하므로 돈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
- ☐ 20. 물은 꼭 끓여 먹어야지 정수제나 정수기를 쓰는 것은 효과가 없다.

TEST 3단계

- ☐ 21. 일반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5년 이상 보관해도 성능은 비슷하다.
- ☐ 22. 비상시 차량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기름은 반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다.
- ☐ 23. 화재가 발생하여 옷이 살의 일부와 붙어 함께 타면 옷을 뜯어서 불을 끈다.
- ☐ 24. 무전원으로 건전지 없이 켜지는 전등은 있을 수 없다.
- ☐ 25. 재난 발생 즉시 집으로 재빨리 돌아가서 가족을 보호한다.
- ☐ 26. 재난 대비용품은 칼과 도구 정도면 충분하다.
- ☐ 27. 재난이 발생하여 집안에 가스가 쉼 경우 가스밸브를 차단하려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여 구조요청 후 침착히 기다린다.
- ☐ 28. 유효기간이 5년이나 되는 식품은 없다.
- ☐ 29. 재난이 발생하여 집안의 모든 배관이 작동하지 않아도 일단 변기의 사용은 무방하다.
- ☐ 30. 재난 대비는 라디오나 TV등에서 위험신호를 청취한 후에 준비한다.

TEST 4단계

- ☐ 31.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큰 자연재해가 없다.
- ☐ 32. 비상시 우선 식량을 구한다면 물이 없더라도 배불리 먹는 것이 좋다.
- ☐ 33. 자신의 판단에 홍수가 날 것 같아도 방송이나 기관에서 괜찮다고 하면 안심해도 된다.
- ☐ 34. 태풍 경보는 태풍주의보보다 한 단계 낮은 발효이다.
- ☐ 35. 홍수가 예상될 경우 가슴정도까지 차는 물은 빨리 건너서 대피한다.
- ☐ 36. 공공장소에서 폭발물을 발견하면 즉시 "폭탄이다!"라고 외쳐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 37.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건은 재빨리 물에 던지거나 담요에 싸서 던진다.
- ☐ 38. 자신이 건물의 고층에 있는데 아래에서 불이 나면 재빨리 고숙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한다.
- ☐ 39.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큰 해일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 ☐ 40. 우리 집에는 음식이 많은 편이므로 비상식량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

TEST 5단계

- ☐ 41. 나는 적십자와 소방방재청은 재난과 관련이 없는 기관이라 생각한다.
- ☐ 42.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기 때문에 비상용 초는 필요가 없다.
- ☐ 43. 생화학가스가 눈에 들어가면 재빨리 눈을 비벼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다.
- ☐ 44. 해일이 있더라도 전문 사진작가는 방파제에서 해일을 촬영해도 무방하다.
- ☐ 45. 번개가 많이 칠 경우 가장 큰 나무 밑으로 재빨리 숨는다.
- ☐ 46. 방사능 유출이 있을 경우 하루가 지나면 방사능이 거의 사라지므로 이튿날부터 활동을 해도 된다.
- ☐ 47. 비상시 탈진환자가 생기면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게 하여 힘이 나게한다 .
- ☐ 48.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전문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다.
- ☐ 49. 화재발생시 건강하고 운동신경이 좋은 남자의 경우는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된다.
- ☐ 50. 나침반은 아무렇게나 놓더라도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이다.

나의 재난예방 점수

나의 재난예방 점수는

1. 체크된 항목이 0~5개인 경우 ⇒ 재난예방 점수 A+(전문가 등급)

당신은 재난에 대하여 최고의 지식과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재난시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가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체크된 항목을 다시 보시고 무엇이 체크되었는지 다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적절한 대비용품을 준비하시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체크된 항목이 6~10개인 경우 ⇒ 재난예방 점수 B(일반인 등급)

당신은 재난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 자신은 지킬 수 있지만 다른사람의 안전까지는 책임 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하는 재난 대비법을 숙지하시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체크된 항목이 10~20개인 경우 ⇒ 재난예방 점수 C(초보자 등급)

당신은 재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자신을 보호할 수없으며 당신주위의 사람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 대비법을 숙지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체크된 항목이 20개 이상인 경우 ⇒ 재난예방 점수 F(위험 등급)

당신은 재난에 대비에 관하여 최악의 수준입니다. 당신은 당신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당신주위의 사람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잘못된 지식으로 2차적인 피해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재난 대비법을 확실히 숙지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1.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 태풍 · 호우 ·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 · 양식시설, 인삼 ·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대상자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주 생계수단인 주민들입니다.
- ※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 군 · 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3.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피해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 ·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 · 동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리 · 동장 및 읍 · 면 · 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4.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5.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 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 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6.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안전팀(042-608-5345)과 대덕구 재난 종합상황실(042-608-5351)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세대주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전화번호				
								휴대폰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명 (본인포함주민등록상세대주)					지급통장계좌번호		은행 - - -		
	고등학생수		명					직불카드지급 희망여부				
피해내역												
피해발생장소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1) 주 택					2) 농업·임업·염생산지							
전 파	유 실	반 파	침 수	세입자	시설종류	소유면적	임차면적	피해면적	허가번호			
3) 수산시설					4) 어 선							
시설종류	피해면적	면허번호	허가번호	임식규모	건조가격(어망, 어구)	유실·전파	반파	등록번호	허가번호	톤수	선경 및 재질	
5) 가축·생물					6) 농·산림작물							
피해종류	폐사수	사육기간	총길이	체중	작물종류	경작면적(소유+임차)	피해면적	인삼생육시기	침수기간			
※ 피해신고 대상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서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 다만, 무허가(주택 제외)·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 및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은 지원대상이 아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인)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가족, 리·통장, 이웃 -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제 호 • 신고자 : 성명 • 피해내역 : 상기 신고내용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 . . . 장 인 • 접수기관 연락처 : ()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요령

- ▶ **피해자란** : 재난지원금의 지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 ▶ **주소** :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 ▶ **전화번호 및 핸드폰** :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 **가족수** :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 ▶ **지급통장계좌번호** :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고등학생수**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 ▶ **직불카드** :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한 직불카드 발급의뢰 여부를 기재합니다.
- ▶ **피해장소** : 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를 기재합니다.
- ▶ **주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피해), 전파(기둥·벽체·지붕 등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기재합니다.
- ▶ **농업·임업·염생산시설** :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사,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을 제외한다) 등으로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수산시설** :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의 면허·허가·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어선** : 유실·전파·반파 어선 중·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면허·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건조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 ▶ **가축·수산생물** : 한우, 젓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펭), 누에, 넙치·송어 등 어류, 김·미역 등 해조류, 굴 등 패조류, 우렁쉥이 등을 기재하고, 수산생물의 경우에는 총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 ▶ **농·산림작물** :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화훼, 버섯, 유실수(밤·대추·떨은감·호도), 산림작물(도라지·더덕) 등으로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기상특보 종류와 발표기준

종 류		주 의 보	경 보	비 고		
호 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비 와 바람의 정도에 따라 세 분		
			구분		바 람	비
			1급		33m/s 이상	총강수량 400mm 이상
			2급		25~32m/s	총강수량 250~399mm
			3급		17~24m/s	총강수량 100~249mm
			ex) 태풍경보 바람1급, 비2급			
폭 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오 존		오염도가 0.12ppm/시간 이상시	오염도가 0.3ppm/시간 이상시 ※ 0.5ppm이상시 중대경보			
해 일	지 진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7.0 이상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7.5 이상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지진 해일피해가 예상될 때			
	폭 풍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₁₀)농도 400 μ 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₁₀) 농도 800 μ 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한 파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 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 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알아두면 편리한 전화번호

□ 긴급전화

화재·구조·구급 **119** 경찰서 **112** 응급의료센터 **1339** 재난신고 **1588-3650**

※ 휴대전화 이용시 1588-3650은 소방방재청으로 연결되며, 응급의료센터는 지역번호를 붙여야(042-1339) 합니다.

행정기관

행정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소 방 방 재 청	02-2100-2114	02-2100-5590	http://www.nema.go.kr
대 전 광 역 시 청	042-600-3114	042-600-3013	http://www.metro.daejeon.kr
대 덕 구 청	042-608-6114	042-608-6569	http://www.daedeok.go.kr
오 정 동	042-608-5601	042-608-5941	
대 화 동	042-608-5602	042-608-5942	
회 덕 동	042-608-5603	042-608-5943	
비 래 동	042-608-5604	042-608-5944	
송 촌 동	042-608-5605	042-608-5945	
중 리 동	042-608-5606	042-608-5946	
법 1 동	042-608-5607	042-608-5947	
법 2 동	042-608-5608	042-608-5948	
신 탄 진 동	042-608-5609	042-608-5949	
석 봉 동	042-608-5610	042-608-5950	
덕 암 동	042-608-5611	042-608-5951	
목 상 동	042-608-5612	042-608-5952	

유관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전지방기상청	862-0367	863-0369	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본부	280-3400	285-6411
대전동부교육청	229-5859	229-1119	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본부	485-0019	486-6494
대전대덕경찰서	933-2000	281-0139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혈액원	254-7101	255-2831
대전동부소방서	609-6431	609-6492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630-7312	630-7303
상수도본부 대덕사업소	627-0117	670-0229	한국수자원공사	629-3465	629-3489
KT 신탄진지점	931-0060	933-0060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930-7212	930-7218
KT 용전지점	621-0060	636-0600	충남도시가스(주)	336-5100	256-3346
한국전력공사 동대전지사	620-2251	620-2334			

참고 문헌 또는 자료출처

- ▶ 안전을 위한 길잡이(소방방재청 발행)
- ▶ 알아두면 편리한 방재기상상식(소방방재청 발행)
- ▶ 우리나라에도 지진이!(소방방재청 발행)
- ▶ 자연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발행)
- ▶ 전기안전 점검요령(산업자원부/한국전기안전공사 발행)
- ▶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조슈아 피본 · 데이비드 보르게닉트 공저, 양은모 옮김, 문학세계사)
- ▶ 외국인용 방재대책 매뉴얼(일본 요코하마시 홈페이지)
-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일본 재단법인 소방과학종합센터 발행)
- ▶ 기타 행정기관, 재난 관련 기관 · 단체, 신문 등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도시 대덕만들기』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우리가족 안전생활 길잡이

- ▶ 인쇄 / 2009년 11월
- ▶ 발행 / 2009년 11월

대덕구재난안전대책본부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